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y
Neville Goddard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자신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는 일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 지음
이상민 옮김

목차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AT YOUR COMMAND, 1939년

의식의 힘 76

THE POWER OF AWARENESS, 1953년

“나”의 느낌을 바꾸기 110

CHANGING THE FEELING OF “I”, 1953년

최상의 지배권 141

YOUR SUPREME DOMINION, 1953년

확실한 투자

174

SOUND INVESTMENTS, 1953년

믿음으로 걸어라

206

WALK BY FAITH, 1967년

철면피

229

BRAZEN IMPUDENCE, 1968년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

252

THE PRUNING SHEARS OF REVISION, 1954년



이 진리를 받아들일 정도로 담대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

네빌 고다드의 생애

Neville Goddard (1905-1972)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양에서는 마크빅터한센과 같이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들과 신사상 이론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1905년 2월에 서인도제도의 작은 섬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나, 드라마를 공부하기 위해 17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시절 댄서로서 많은 무대에서 활동했지만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젊었을 때에는 낭비벽이 심했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하지만 투어 공연 중, 친구가 소개한 마음의 힘을 다룬 책을 읽고 나서 형이상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후에 압둘라라는 이름의 에티오피아 출신 랍비에게서 성경에 감취진 마음에 관한 상징, 히브리어의 비의적(秘義的) 상징 그리고 카발라 등을 배우고 마음을 훈련시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네빌은 압둘라에게 배운 7년 동안 자신에게 쌓여 있던 많은 선입견과 미신을 걷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네빌은 그 후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시작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였다. 청중들은 자리를 꽉 메웠고, 많은 사람이 큰 감명을 받고 돌아갔다.

네빌의 강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현현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까지 다양했다. 대중들은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네빌은 많은 편지와 사람들의 방문을 이 시기에 받는다.

자신의 육체를 버리기 몇 년 전부터 네빌은 강

연에서,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마쳤고, 이 육체를 벗고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 날을 기다린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리고 1972년에 영감으로 가득 찬 영혼은 육체를 떠난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많은 강연과 글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다.

위대한 강연자이자 역시 압둘라의 제자였던 조셉 머피는, 네빌 고다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네빌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로 기억할 것이다.

들어가기 전에

I AM을 해석하면서

네빌 고다드의 강의는 우리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서 삶을 풍요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누구인지’, 즉 ‘I AM이 무엇인지’에 관해서이다. 모든 철학적인 질문들과 삶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답은 바로 이 ‘I AM’이라는 단어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나’를 정의할 때 지금의 육신의 모습과 자신의 위치에 한정해서 표현한다. 하지만 네빌은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한번도 자아의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자아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나’는 얼굴도 없고, 형체

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내가 받아들인 것들 모두와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쉽게 ‘나는 아무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네빌의 이론에 따른다면 ‘나는 아무개인 것으로 인식하다’가 될 것이다.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한정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믿는다면 지금의 한계와 속박 속에서 남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원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나를 새롭게 주장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고이다(I AM He)’

‘I AM’의 정확한 해석은 아니겠지만 본문에서 이 말이 대문자로 쓰였을 때에는 항상 영어와 함께, ‘의식’, ‘존재’, 혹은 ‘인식하다’ 등의 의미로 해석했고, 때로는 문맥상 ‘나는’이라는 표현이 매끄러울 때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다.

AT YOUR COMMAND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창조의 법칙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수백 페이지 가까이로 늘릴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 책이 목적인 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명령은

짧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위대한 명령은

다음의 간단한 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이 원리에 맞추어 제가 이해한 그대로,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길지 않은 글로 전해드립니다.

-네빌 고다드

자신을 보다 위대한 관념으로 채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풍요,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바라던 것들로 말이죠.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의식을 쉽게 가졌던 것처럼,

자신에게 위대함이라는 관념을 주는 것 역시 쉽습니다.

성경에서 하느

님이 ‘있으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어떤 것에 대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선포했던 것들이 과거에 나타났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들은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것이 있으라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말을 부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이라는 증거를 얻기 위해 시험해보더라도 거짓임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선포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선포를 하기 위해 말을 할 필요도,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도 없습니다. 공허하게 말만 반복하는 것은 지금 주장하는 것의 반대편에 자신이 서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포는 의식 안에서 완성됩니다. 즉 사람들 모두 자기 스스로에 대해 선포했던 대로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병어리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자신이 병어리가 된 것을 인식합니다. 자기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들보



다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고대에 일어났던 문명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예수님이라는 비범한 분의 일생을 적은 기록이라고 읽는 대신에 인간의 의식 안에 자리하고 있는 위대한 마음에 관한 드라마로 보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세상은 이집트의 메마른 사막에서 가나안의 약속받은 기름진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창조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하느님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직자들 모두, 하느님의 존재와 본성에 관해서는 달리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모세와 고대의 선지자들이 하느님의 본성과 존재에 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



과 가르침에서 나타난 하느님 역시, 고대의 선지자들이 발견한 하느님의 존재와 본성과 일치합니다.

“나의 인식(I AM)이 나를 그대에게 보냈더라.”

(I AM hath sent me unto you)

이 말을 모세가 했을 때 인간의 인식이 하느님이란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말합니다.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I AM) 하느님인 것을 알라”

이사야 역시 말합니다.

“나는(I AM) 주이고 그 외에 어떤 것도 없느니라.

나 외에 어떤 하느님도 없더라.

나는 그대의 허리를 동여맬지니

그대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빛을 만들고 어둠도 창조했노라.

주(LORD)인 나는 이 모든 것을 할지라.”

신약에서는 존재의 의식이 하느님이라고 수백
번도 더 언급되었습니다. 그 중에 조금만 언급해
본다면,

“나는(I AM) 목자이다. 나는(I AM) 문이다.

나는(I AM)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I AM) 길이다.

나는(I AM) 알파요, 오메가이다.

나는(I AM) 시작이요, 끝이다.”

그리고 또

“그대는 나를(I AM) 무엇이라 말하는가?”

“나 예수는 문이다. 나 예수는 길이다.” 혹은
“그대는 나 예수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런 식
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
다. “나는(I AM) 길이다.” 존재의 의식은 세상 모
든 것이 형태를 띠게끔 하는 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부활하게 만드는 권능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을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런 힘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외부세상 속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을 속박 속에 매이게 하든지 한없이 자유롭게 만들든지, 그 선택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기에 인식하고 있는 것에 생명을 주는 이 진리는 인간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속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외부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하느님이라고 선언한다면, 예수님이나 고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나와 나의 하느님은 하나이다”라는 깨달음을 지니고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와 나의 하느님은 하나이더라.

그러나 나의 하느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니.”

어쩌면 이 말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우리 존재의 의식으로 생각해본다면, 이 안에 담긴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으로서 나의 의식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증거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아들’과 같습니다. 마치 생각하는 자와 그가 만들어낸 관념의 관계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자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보다 더 위대하지만, 생각하는 자는 그 관념과 여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간인 것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존재 그 자체만을 인식합니다. 그런 후에 인간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관념, 즉 인간이라는 관념보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자로서 보다 위대한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하느님과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하느님은 아닙니다. 예수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느님을 인식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다가와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라고 말하거든,
그 말을 믿지 말라.
하느님의 왕국은 그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더라” 라는 말이 성경에 적혀 있을 때, 이것은 ‘예수’라는 현재 관념의 한계를 초월해서, 오직 존재 그 자체만을 인식하는 상태까지 의식을 고양시킨 것을 뜻합니다. 존재의 의식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대가 선포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원하는 존재가 된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상태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선포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들어 올려진다면, 모든 사람을 내 곁으로 끌어올 것이니” 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었습니다. 또 “내 안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더라.” 그래서 의식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온 아버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일하게 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실제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현재의 상황들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까지 의식을 들어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식 상태에서 다른 의식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옛 것에게는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에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대는 나를(I AM) 무엇이라 부르는가?”

이 질문은 ‘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제

자에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나의 진정한 존재가 나의 외부자아에게 던지는 영원한 질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대는 그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일 것입니다. 스스로 규정해놓은 여러분에 대한 확신, 스스로 규정해놓은 여러분에 대한 신념이 바로, 여러분 삶에서 나타날 것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대는 하느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는다.”

즉 여기서 하느님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없는 어떤 것을 외부의 하느님에게 갖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더 이상 기도라 말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원하고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하느님에게 구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난하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에게 부를 가져다 달라고 기도한다면,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져다 줄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애원이어서는 안 되고, 자신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감각이 가난하다고 전해주는 증거들을 거부한 채, 가난하다는 인상들에 완전히 등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유하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기도를 할 때,
골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 보고 계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그대에게 숨김없이 줄 것이시더라.”

우리는 ‘아버지’를 존재의 의식으로 정의했습

니다. 또한 ‘문’이라는 것도 존재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은 ‘내’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닫고는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주장들이 확신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내 주변에는 주장하던 것들에 대한 증거의 열매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즉 이루어진 어떤 것들도 바라던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의식,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드러나는 길이자 문입니다.

“나는(I AM) 길이다.”

이 말을 했을 때 ‘나 아무개’가 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의식(I AM)’, 즉 존재의 의식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적은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결코 의식보다 앞서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식보다 더 실체인 것은 없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상태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 상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뒤따라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에게 더해질 것이니라.”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소망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대가 선포한다면 그것들은 실현될 것이다.”

이 원리를 적용해보시면 “나를 시험하고 보소서” 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또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라는 사람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낳은 여인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마리아(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뜻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는 어떤 남자도 모르고



지냈지만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존재의 의식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의식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만들고 주님의 아이(현현)를 잉태합니다.

“그대를 만든 이는 그대의 남편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더라.
그는 온 땅의 주 하느님이라고 불릴 것이니라.”

여러분의 이상과 야망은 이 이야기에서 잉태된 태아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첫 번째 명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은 마리아를 여러분 자신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야망과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여러분 안에 숨겨둔 두려움만을 전해줄 것입니다. 소망을 현실로 가져오는 데에 첫 번째 지켜야 할 법칙은 비밀유지입니다.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명령을 받습니다.

“주를 크게 하라(Magnify the Lord)”

〈역자 주: 이것은 흔히 ‘주를 찬양하라’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주를 크게 하라”는 것은 현재의 자아관념을 새롭게 써내고 확장시켜, 이 확장된 새로운 자아에 대한 관념이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얻어졌을 때 의식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된 것은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장을 보시면 창조에 대해 간략하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지금’이 여기서 말한 ‘태초’입니다. 즉 태초는 충동의 시작 그리고 욕망의 시작을 말합

니다. 그리고 욕망은 여러분 의식 속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현현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욕망의 충동은 실체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존재의 의식, 즉 ‘나의 의식(I AM)’이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I AM) 원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할 때만 욕망은 생명을 얻어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의 두 번째 문장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 즉 욕망을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에 의해서 고정되거나 의식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식을 형태 또는 관념에 못질하는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관념에 생명을 불어넣어 지금까지는 죽은 채 있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욕망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뜻을 같이 하여 구한다면
그것은 땅 위에 세워질 것이더라.”

여기서 뜻을 같이한다는 것은 실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바로 의식과 이루고자 하는 것 사이에 이루어진 동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I AM)”고 입을 통해서 말하는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존재한다(I AM)”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건강의 증거가 주어지기도 전에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느끼기(FEEL)’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I AM) 건강하다(healthy)”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두 사람이 뜻을 같이하게 된 것입니다. 즉 ‘나의 존재(I AM)’와 ‘건강(health)’이 하나가 되는 것에 동의를 했고 그것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런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

의 모습은 현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나의 의식(I AM)이 나를 보냈다” 고 말했던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나의 의식(I AM) 외에 어떤 것이 세상 속에 모습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권능이겠습니까? 의식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I AM) 길이니라.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없나니.”

여러분이 하늘 위로 날아올라가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자리를 떠더라도, 그곳이 어디라도 자신의 존재는 항상 인식됩니다. 의식이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고,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인식하는 존재이니라(I AM that I AM).”

여기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술을 낚은 병에 담거나 새 형질을 낚은 옷에 불

여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낡은 부분을 새로운 의식 속으로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한계는 현재의식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그대로 묶어놓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아, 즉 여러분 자신에 대해 심어놓은 관념을 뒤에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당면한 문제와 한계로부터 의식을 거둬들이고 단지 존재 안에서 머물면 됩니다. 입을 통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나는 존재한다 (I AM).” 이 ‘존재’에 아직까지 어떤 관념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존재라고 선언하고,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존재에만 머문 느낌 속에 폭 빠질 때까지 이 선언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의 ‘형태도 없는 깊은 상태’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껴서 새로운 관념에 생명을 주십시오.

이런 깊은 상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랄도, 이 형체 없는 의식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육체로부터 벗어나 주의 곁에 머물라.”

‘육체’는 여러분에 대한 관념이고 ‘주’는 여러분 존재의 의식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그대는 다시 태어나야만 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대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관념들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현재의 한계만을 외부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드러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식은 여러분의 주변 모든 것에 끊임 없이 형체를 부여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누군가의 세상, 그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식이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울을 깨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들을 부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펼쳐진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비추는 것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의식이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세상도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를 볼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더라.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이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 거인들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업과 전쟁의 위협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느끼게 하는 거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기 때문에 그 거인들의 눈에도 메뚜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이의 눈에도 똑같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모든 권능의 중심인 거인으로 느낀다면 작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거인으로 보게 될 것이고 작은 존재들은 메뚜기가 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 되고,
하늘의 군대에서 그리고
땅 위에 존재하는 것에서도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하더라.
그 누구도 그의 손을 막을 수 없고, 그에게
‘무엇을 하는 짓인가?’ 라고 말하지도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우리가 흔히 말해오던
우주에 앉아있는 하느님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즉 우리의 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존
재가 지니고 있는 권능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능이 아닌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인,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여러분
의 의식을 말합니다. 속박 속에 갇혀 지내던 자
신을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나는 훌륭한 목자이고,
나는 나의 양들을 알고,
그것들도 나를 알더라.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더라.”

의식은 훌륭한 목자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나를 따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은 훌륭한 ‘목자’이기에 의식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양’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나는 소란스러운 군중들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광야의 외침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게 울려 퍼지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중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의식(I AM)’은 내가 인식한 모든 것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존재의 의식은 주이고 삶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라”라는 구절은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의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들의 증거는 부족함 없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보다 위대한 관념으로 채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사랑,

풍요,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바라던 것들로
말이죠.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의식을 쉽게 가졌
던 것처럼, 자신에게 위대함이라는 관념을 주는
것 역시 쉽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지금 이 모
습을 한 이유는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의
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
니까?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인간의 머리
로선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세상의 지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유대인들(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더라.”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보다는 컴컴
한 어둠 속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해왔기 때
문에, 이 진리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것을 신성
에 대한 모독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

는,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선 종말을 선언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니”라는 지혜를 전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현재의 관념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재 인식하고 있는 관념보다 여러분은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기본이 되는 다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나는(I AM) 주(Lord)이다.”

즉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의식인 인간의 의식은 하느님입니다. 이 진리가 자신 안에 단단히 세워지기 전에는, 자꾸 예전의 믿음이 만들어낸 한계라는 감옥 속에 갇힌 노예의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I AM) 그(He)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때의 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더라.”

즉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혼돈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이 들어 올려진다면, 그때 “나는(I AM) 그(He)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아무개로서의 지금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나의 아버지, 즉 나와 하나가 된 의식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모든 충동과 모든 욕망은 여러분 세상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보라 나는 문 앞에 서있고 문을 두드리니,
누구라도 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그에게 들어가 그와 저녁을 먹고
그는 더불어 나와 저녁을 먹노라.”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나’는 바로 충동을 뜻합니다. 문은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자신이 바라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슴속에서 피어난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느낀다면 그 문을 닫아버린 것이고, 충동이 세상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곳까지 의식을 고양시킨다면 문을 활짝 열어서 가슴속에 피어난 충동에 형체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가 세상에 형체를 나타낸 것들을 떠나 아버지에게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이기도 한 예수는, 인간으로서 자신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의 의식 상태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임을 이해한 후에는, ‘예수라는 의식’을 떠나서, 의식 안에서 원하던 곳까지 솟아올라 그것과 하나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과 하나되었을 때 소망은 세상 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이란 우리가 하느님으로 부르는 존재인,

‘개체성을 초월한 의식(I AM)’이 걸치고 있는 옷
일 뿐입니다. 이 옷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
다.

이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즉 인간인 아무개
가 보기에 불가능했던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지
금 현재 지니고 있는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인 한계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원하는 것과
하나된 느낌 속에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이 욕망 혹은 새로이 갖춘 의식이 그 모습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
다. 이렇게 새롭게 얻어진 의식은 “그래가 모르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이 어떤 방법으로 모습을 드러
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 길
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
해 생각한다는 것은 원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
여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느님에게 물어라.

그분은 모두에게 아낌없이 주고 꾸짖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것들은 그에게 주어질 것이더라.
하지만 의심을 가지고 묻지 말지어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런 자는
주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면, 그
것을 세울 원인과 기반이 없는 꼴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의식이 확고하게 자
리 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약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받았다고 기쁨을 느껴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감사하고 있

는 것과 의식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 된 것입니다. 하느님(여러분의 의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마법의 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은 원하던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는 곳까지 의식 안에서 솟아올라,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기 전에는 하나의 욕망에 지나지 않았던 선물을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욕망에 형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둘이 하나됨을 약속하는 영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닮은 아이는 이

땅 위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대가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그대에게 줄 것이니라.”

‘무엇이든지’는 무한하게 많은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말한다면 혹은 틀린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그대에게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정말 바라시나요? 그거면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면 삶은 그것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소리를 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혹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무언가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기도만을 계속 할 뿐입니다. ‘이름’은 본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에 대한 본질 안에서 구하게 된다면 결과는 항상 따라옵니다. 이름 안에서 구

한다는 것은 의식 안에서 솟아올라 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즉 원하는 것의 본질까지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깥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 믿어라. 그러면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미 받았다”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이 1인칭 시점이어야 하고, 현재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기 전에, 원하던 것의 본질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그 원하던 모습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현재 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놓아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적의를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라.

그러면 천국에 계신 너의 아버지 또한
그대를 용서할 것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아버지 또한
그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더라.”

이 말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는 인간적인 하느님에 관
해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하느님을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은 하느님이기
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적의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렇게 제약
한 것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
고, 기도하기 적합한 상태까지 솟아오르게 될 것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누구에 대한
비난도, 그리고 어떤 종류의 비난도 존재하지 않
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가
장 좋은 훈련은 세상 모든 사람을 그 비난의 대

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법칙’에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념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괜히 다른 이들이, 그들이 옹당 받아야 될 결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살피는 데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오차도 없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준 것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십일조의 의미로 잘못 이용되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대중을 십일조라는 것으로 얹어매고 있습니다. 십일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입의 십 분의 일을 주님에게 드려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즉 수익의 십 분의 일을 그들이 다니고 있는 특정한 단체에 준다면, 십일조를 주님에게 드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IAM) 주이다.” 여러분 존재의 의식이야말로 여러분이 십일조를 드려야 할 하느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자신의 존재를 하느님(의식)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평등한 존재의 의식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주장했던 모습과 성질을 여러분에게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의 의식을 가리켜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풍요라 칭하든, 위대함이라 칭하든, 크나큰 지혜라 칭하든, 그것들 모두 규정지을 수 없는 이를 규정지은 것뿐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식으로도 이름 부를 수 없습니다.

십일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느님에게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오직 하느님에게만 십일조를 해서, 여러분 자신이 위대하다고, 부유하다고, 사랑에 넘친다고, 더 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해, 그렇게 인간으로서 바라던 모습들을 하느님에게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느님에게 바친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확신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비밀 속에서 속삭여진 것은 세상 안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즉 비밀스러운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주장은 믿음의 옷을 입을 때 세상 안에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확신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이며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수는 없고 그것들이 보내진 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확신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무한한 영역에서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 즉 어떤 확신도 여러분을 찾아내는 것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I AM) 포도나무이고 그대들은 가지이니.”

의식은 ‘포도나무’이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영양분을 줘서 생명을 주고 있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뿌리내려 있지 못한다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식 안에 뿌리내려 있지 못한 것은 생명을 잃습니다.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를 통해 흐르지 않는다면 시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것에서 의식을 제거한다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것은 시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생명을 주고 유지시켜주는 수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정말 현실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단지 그것에서 의식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그 문제들이 아무리 실재처럼 느껴지더라도 의식 안에서 그것들에게

등을 돌리십시오. 문제에 무심하게 되어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느끼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속박되어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유에 대한 열망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철창으로 둘러싸인 사방의 벽들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스스로 자유롭다 느끼기 시작하십시오. 그 느낌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자유롭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던 철창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이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보십시오.

아주 큰 빛을 졌던 사람이 이 법칙을 사용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산더미 같은 빛을 모두 청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의사가 불치병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포기한 사람이 단지 자신을 감싸고 있는 병에 의식을 거두고는 감각이 건강과는 반

대의 증거를 내보이고 있는데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이를 봤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불치병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대는 나를(I AM)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속박되어 있고, 병에 걸려 있고, 혹은 가난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제약한 것들이 외부세계에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찾아 헤매고 있는 존재가 이미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증거들은 세상 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구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그러자 대답합니다.

“예수입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그이다.”

여기서 ‘예수’는 구세주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이지도 않은 것에서 구원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I AM)’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할 그(He)입니다. 만약 지금 배고프다면 여러분을 구원해줄 것은 음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다면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속박되어 있다면 자유가 구세주입니다. 지금 아프다면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이다”라고 주장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십시오. 목소리를 내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의식은 선언한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를 더듬어 찾을 때(FEEL after me),
그대는 나를 찾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이 원하던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의식 안에서 그것을 더듬어 찾으십시오. 그것이 되었다는 느낌 속에 폭 빠졌을 때, 찾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실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자신의 의식이 닿았을 때 치유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는가?
나의 힘이 빠져 나간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느끼면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치유된 자아 안에 닿았을 때 바로 그 자아에서 힘은 빠져나올 것이고 치유된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 안에서 모습을 굳혀갈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대는 하느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노라.
왜냐하면 내가 그이기 때문이더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는 하느님과 자신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에,
그런 하나 됨을 약탈이라 생각하지 않으셨더라.”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식, 즉 여러분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의식을 하느님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하느님에게 부여했던 속성들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주장한 것들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저쪽에 떨어져 있는
어떤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의 손과 발보다 가깝고
그대의 숨결보다도 가깝더라.”

나는 존재의 의식입니다. 나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시작되고 끝을 맞이하는 모든 것입
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나는 존재한다(I AM).
그리고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존재한다(I AM).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나는 존재한다(I AM).”

여기서 존재하는 나는, 바로 여러분의 의식을
말합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집을 짓는 것이 헛된 수고이더라.”

여기서 ‘주(The Lord)’는 여러분의 의식을 말하
는데,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을 의식 안에서

먼저 세워놓지 못한다면 헛된 수고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시작과 끝이 의식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믿고, 또한 자신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비취줄 뿐이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먼저 했던 일을, 오직 그것만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고,
나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뿐이더라.”

스스로 내려놓을 힘도,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울 힘도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도, 우연히 생긴 것이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의 인도를 받아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오지 않았다면,
어떤 이도(어떤 것도)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더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

이 진리를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타인을 비난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비난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의식(I AM)’은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의식(I AM)’은 그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모습과 관념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어느 환경에 처해있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적은 의식에 뒤따라올 뿐, 그것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의식 속에 사로잡힌 채 가난이

드러내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방향으로 인생의 게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탕아의 이야기에서 보여준 예를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에 낭비와 결핍의 환경들을 가져왔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살쥔 송아지와 반지 그리고 옷이 있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탕아가 이런 재산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용기를 가졌을 때 어떤 비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다른 이들이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가 허락한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더라.”

그것은 삶에 있어 비난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자라고 말하든 아니면 가난하다고 말

하든, 강하다고 말하든 아니면 약하다고 말하든,
삶이란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모습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삶은 그것을 항상 되돌려줄 것입니다. 옳고 그르냐에 대한 척도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삶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것이란 없고,
다만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자에게만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주 예수에 의해서 알고 믿게 되었더라.”

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받을 자격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 욕망은 형체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가 굶주렸다면(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자유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그것 안에 스스로를 펼쳐낼 계획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의식 안에서 여러분의 욕망이 있는 곳까지 고양시켜,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여러분과 욕망을 하나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축복은 그대에게 충분하니. 나의 강함은 약한 곳에서 완벽해지더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확신이 들어찰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장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 안에 존재하는 확신은 크나큰 선물을 줄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이 주장한 것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현현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떤 것도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이라는 뼈대가 만들어 집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더라.”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결과도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욕망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말씀과 욕망을 하나의 약속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에게 한계를 놓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어떤 한계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처음 다가온 그대로 욕망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그것들을 받았다는 기쁨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그런 후에 평온함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을 받아들이한다는 것은 씨앗을, 즉 풍성함을 예고하는 씨앗을 준비된 토양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의식 안에 심어놓을 때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어떻게 자라서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이성이라는 것 안에 풍요를 가져오는 씨앗을 짊어지고 믿음의 토양 안에 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제약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사물,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법칙인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진리를 잊은 채 계속 존재의 외형만을 쫓아 판단을 하면서 그것들을 실체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실체로 보는 것은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감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벽을 실제처럼 보고 있다면, 그 안에 솟아오르는 자유에 대한 충동 혹은 하느님의 약속을 자연스럽게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욕망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마음속에 다른 이를 죽이고 싶다 한다면 그런 욕망을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를 죽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망, 바로 그 안에 자유롭게 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리고 욕망이란 것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스로를 펼쳐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욕망에 제약을 주어서는, 유일하게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그 사람을 죽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이 스스로를 펼쳐내는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 선물을 왜곡해버립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은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산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난다면 그 산조차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대할 때 다음의 여성분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 나이든 여성이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나다.

“만약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는다면, 저쪽의 산을 보고 사라져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성경의 이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고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자마자 그녀는 창으로 뛰어가서는 소리쳤습니다.

“저 산이 저렇게 그대로 있을 줄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것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계속 생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것들은 사람의 의식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이고, 모습이 드러난 것은 단지 의식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천국과 같은 상태는 의식 안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늘나라의 뜻은 지상에서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안에 만들어놓은 여러분의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지금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하늘나라는 스스로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진실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나라를 짓고 새로운 의식 상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사라질 것이더라.

그것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속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더라.

왜냐하면 보라! 나(여러분의 의식)는 속히 왔고

나의 보상들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나’는 이름이 없지만, 여러분은 어떤 이름(본

절)으로도 ‘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나’라고 말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 즉 깊은 내면의 모든 확신은 존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I AM)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즉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낚시하는 법을 말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밤새 낚시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낚지 못했던 물 위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꽂차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안에서 이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낚시를 위한 도구들이 여러분 안에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여러분의 의식)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했던 것처

럼 인간 안에 자리한 어둠 속에서 낚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외부의 것들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낚기 위해서 투쟁과 노력이라는 인간의 미끼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만나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강요해보기도 하겠지만 그런 모든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가 낚시를 지시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여러분이 바라던 것을 의식 안에서 낚을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여러분이 잡게 될 물고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그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는 유일한 실체입니다. 만약 현재의 능력을 넘어있는 것을 잡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의식 안에서는 욕망이라는 물고기들이 헤엄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식을 지금의 문제와 한계로부터 철수시켜, 그것들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한계로부터 완벽하게 등을 돌리십시오.

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존재이다(I AM)”, “나는 존재이다(I AM)”, “나는 존재이다(I AM)” 라고 계속 선언함으로써 단지 존재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이 단지 존재라는 것을 계속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 선언에 어떤 제약도 놓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자신의 존재만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문제의 수면 위에 여러분을 묶고 있던 닻줄을 풀고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때 확장된 느낌이 동반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확장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느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전에 가졌던 인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계로부터 의식을 돌렸을 때에 그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만 생명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고 확장된 의식 안에서 여러분은 이전까지 절대 생각해본 적 없던 힘을 자신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계에 매여 얽은 물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가진 욕망이 깊은 물속에서 노닐고 있는 물고기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장애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나는(I AM), 즉 여러분의 의식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만약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고 세상 안에서 생명을 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인 부활하는 힘과 원하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나는(I AM) 풍요롭다”, “나는(I AM) 자유롭다”, “나는(I AM) 강하다” 등과 같은 것을 느끼면서 소망하는 것들의 본질과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십시오. 이런 ‘느낌’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형체 없는 존재가 자신의 존재로 느꼈던 것들은 형체를 부여 받게 됩니다. 풍요, 자유, 강함이라는 느낌에 여러분은 ‘십자가형을 받게(crucified)’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존재하는 고요함의 무덤 속에 묻혀

계십시오. 그런 후에 기대조차도 놓아버리는 고
요가 찾아올 때 확신 속에서 보았던 모습은 살
아있는 실체로,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새로
운 과실이 열리게 되었기에, 세상은 여러분을 만
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살과 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
에 현현을 가져오는 성공적인 낚시 법입니다.

소망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방법은
사자 굴에 갇힌 다니엘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사자 굴에 있
는 동안, 사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위에서 비치는
빛만을 보았습니다.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고 다니엘의 신에 대한 믿음은 그를 구원했
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여러분
은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자 굴에 갇히게 된다면, 다른 것에는
신경이 안 쓰이고 오로지 사자들만 신경을 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오로지 사자로
표현된, 여러분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다니엘은 등을 돌려 자신의 하느님인 빛에
만 시선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다니엘
처럼, 병이라는 동굴, 가난이라는 동굴 속에 갇
혀 있다면 그것들이 보여주는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머무십시오.

우리도 만약 의식 안에서 문제들을 뒤돌아보
지 않고 믿음을 유지해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 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를 가두고 있던 감
옥의 문은 열리고 우리가 구하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과
부와 기름 세 방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과부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집에는 무엇이 있는가?”

과부는 대답합니다.

“기름 세 방울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그대의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그것을 부어 넣어라.”

그러자 그녀는 기름 세 방울을 빌려온 그릇에
딱 차게 부어 넣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바로 이 과부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이
를 낳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과부, 즉 여
러분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주(LORD)이자 여러분의 남편인 예언자입
니다. 이 이야기에서 과부가 보여줬던 행동처럼
자신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
지 말고 이야기에서 기름 세 방울로 표현된 작
은 것을 우선 인식하도록 하십시오.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즉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거라고는 오히려 빛과 문제밖에 없다고 말하는 감각의 문을 닫으십시오. 감각이 전해주는 증거를 닫고 완전히 여러분의 의식을 돌렸을 때 바라던 것을 이미 받았다는 기쁨(이야기에서는 기쁨으로 상징되었습니다)을 느끼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내부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여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그때 여러분 역시 그 과부처럼 삶의 빈 공간들은 넘치는 풍요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인식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권능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인식했던 모든 상태는 여러분의 세상 속에 현현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의 과부처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의 시작은 아주 적더라도 그것에서 시작하여 기쁨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것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을 크게 확대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I AM) 주 하느님이니,
그대를 이집트의 땅으로부터,
속박의 집으로부터 건져내었더라.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없노라.”

여러분의 의식을 주 하느님으로 나타내니, 얼마나 영광된 계시입니까? 속박되어 있다는 꿈에서 깨어서 오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충만함,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인간에 불과하다는 한계의 그물에 걸려서는 진정 영광된 존재라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존재의 의식인, 하느님의 목소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AWARENESS

의식의 힘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아 자신에게,
내부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실 겁니다. 이곳이야말로 제가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베일 박사님은 여태까지 단 한번도 저에게 어떤 제약도 주신 적이 없었고 어떤 상황을 제안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연단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 곳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주제에는 ‘의식의 힘 (The Power of Awareness)’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인식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반석의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어떤 것도 이 반석의 기초를 흔들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고, 새로운 것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많은 실험이 있었지만 이 기본적인 진리는 단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기본이 되는 이 진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궁극적 실체를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극적 실체라고 말하는 의식에도 똑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을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상상력 (imag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의식, 즉 활동하고 있는 하느님을 아버지의 증거를 가져다 주는 아들이라 말한다면 상상력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깊은 확신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반증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식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개개인의 의식상태가 형태를 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individual identity)와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상상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입니다.

어떤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잠시 동안 머문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조건과 환경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먼저

바꾸지 않는 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세상을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관찰자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산디에고가 어디 있어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약 1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산타바바라가 어디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한 100마일쯤 가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은 대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는 제가 꼭 아인슈타인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이 13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다른 곳은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근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는 여러분이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지 말해보

라 하고, 주의 깊게 여러분의 대답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적으로 세상이 어떤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세상인지, 영적으로는 어떤 세상인지 묻는다면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 대답을 듣고 있는 저는 여러분이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어떤 의식의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면서 많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갖고 있던 본래의 뜻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잊혔습니다.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 두 가지 말에는 지금은 공통된 의미나 뜻 그
리고 분위기가 없습니다. 이제 ‘잠재의식’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말이 어떻게 정의되는
지 보겠습니다. 사전에는 잠재의식에 대해 이러
게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의식의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의식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의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영역에 관한 정의입니
다. 그럼 이 영역에 관해서 어떤 주장들이 있는
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정신 과학자들이나 정
신과 의사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간
의 창조적인 힘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재의식의 활동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재
의식에 먼저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지배를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잠
재의식이라 부르는 곳이고, 다른 이들은 ‘무의
식’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총체적인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잠재

의식은 그 내부구조에 따라서 외부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것에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실체이고, 형태를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외부세상은 잠재의식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잠재의식을 유일한 실체라고 합니다. 이 깊은 곳의 내부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객관적인 외부세상에도 그것과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재의식과 접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외부세상은 잠재의식의 뜻대로 결정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더라.

그가 없었다면

만들어진 것 중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더라.”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일부의 것만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봤더니, 우주의 질서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간 것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요,
그 가슴으로부터 나간 것이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것만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악한 것 역시 바깥으로 나옵니다. 모든 것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간 것이 인간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가슴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인간에게 축복을 내릴 수도 있고 인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창조력이 있어서 그 자신에 맞춰 외부세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창조

력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컫습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깊은 영역에 접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잠에 들었을 때 꿈을 통해 그 깊은 영역을 엿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속에서,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때 그는 인간의 귀를 열어
그들의 지시를 봉인하더라.”

하느님께서 그의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주로 꿈속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위대한 계시를 드러낼 때도 꿈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 솔로몬에게 부와 장수와 위대한 힘을 약속한 것도 밤의 환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도 꿈속에서였고,

모든 것이 다 꿈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깊은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깊은 영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이 신비로운 깊은 영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고대인들이 진정한 궁극적 실체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를 이용해서 발견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관찰해서는, 관찰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마음에 관한 설명도 마음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깊은 영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상상력을 이용하자’고 말했을 때에도, 그것은 상상력이 그 자신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상상력이 상상력 자신을 잘 관찰하게 하고, 그 관찰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면, 여러분은 복음서의 주인공이 바로 상상력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을 명심하고 복음서를 읽게 된다면, 그 모든 복음서는 빛나는 책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좋으니, 하나의 짧은 문구를 가지고 보십시오. 만약 이 강연이 열린 모임이었다면 여러분이 그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무슨 뜻인지 저에게 묻는다면, 그 복음서의 주인공을 상상력과 동일시하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대답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만들 것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나를 사랑하는가?”

“예, 주여,

그대는 제가 그대를 사랑하는 것을 아나이다.”

“그렇다면 나의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는 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하고, 베드로는 유사한 대답을 세 번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이 세 번 주어졌기에, 어느 정도의 반

항이 야기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상상력이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 바꿉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를 발견했다.

나는 나의 목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양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방
랑하는 양떼와 같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마치
목자가 없는 방랑하는 양떼와 같습니다. 이제 여
러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바로 ‘나’인 것을 발견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가 바로 ‘나’라는 것
을 발견했습니다. 즉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Him)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대답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의 양들을 먹이라.”

그렇다면 나는 양떼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

습니까? 내가 그 양떼를 먹이지 않았던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양떼 중 한 마리라도 먹이지 않았다면 양떼를 먹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스럽지 않은 상상을 했을 때, 여러분은 ‘나’를 데리고 진흙탕 속으로 걷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상상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라면 나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진흙탕 속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주인을 잘 섬긴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의 이웃에 대해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자신의 주인을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을 구했지만

그대는 나에게 먹을 물을 주지 않았다.

나는 음식을 구했지만

그대는 나에게 주지 않았더라.

나는 안락한 장소를 원했지만

그대는 나를 그 안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더라.

나는 의복을 구했지만

그대는 나에게 그것을 덮어주지 않았더라.”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나요? 먼 기억들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작은 부분에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양떼를 먹인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게라도 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이라고 말해졌던 것이 자기 자신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폭군 중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 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범죄자, 가난한 자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자는 모두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비난을 하지 않고, 대신에 용서의 팔을 벌리고는 고귀한 생각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모습을 최상의 모습으로 상상하고 나를 둘러싼 세상에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주변 세상을 묘사할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눈에 보이던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던, 한번도 흔들렸던 적 없는 반석입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에머슨이 말하기를, 진실된 이론은 그것 스스로의 증거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된 이론임을 시험하는 방법은 그것이 삶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여러분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라 말하고 있는 이 이론은 한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머슨이

말한 진실된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론을 꼭 테스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이 이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으로 이 이론이 옳다는 것을 오히려 밝혀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이로운 의식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실체이고, 어떤 것을 취하냐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선택하는 모든 상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 선택하는 모든 상태는 다 옳지만, 그 선택에 우리가 관여하게 되면 실행되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론은 갑자기 어딘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년 동안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과 최근에 제가 낸 책인, ‘의식의 힘(The Power of Awareness)’에 기

록된 실제 사건들은 이 이론에 겨 맞추기 위해 지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서서히 세워진 이론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이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저에게 묘사했을 때,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습니다. “무엇을 원해요?”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이론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묘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자, 당신은 이제 세상을 그런 모습으로 봐야 할 겁니다. 지금 묘사한 상태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상태 안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현실로 굳어져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지 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눈을 통해 봐야 할 세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세상이 머지않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면 그 이론은 끼워 맞추기 위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서 도출된 이론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나’를 원하는 상태 안으로 계속해서 옮겨와, 충분히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 상태를 차지해나간다면, 그 순간 그 상태는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진실된 이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thinking from)과 결과를 생각하는 것(thinking of)의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임

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생각하는 것과 로스앤젤레스를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전자는 실체이고 후자는 아직 실체가 되지 못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성경의 주인공이며 세상 어떤 힘도 상상력의 여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상력은 어떤 저택이든 갈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 안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에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 서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전의 모든 상태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의 모든 저택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하느님의 위대한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아들이 그 저택에 들어가서 머물게 된다면 우리 또한 육체를 지니고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상태가 이미 존재합니다. 진정한 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로지 아들만이 아버지의 저택에 들어갈 수 있다



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란 나의 상상력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마치 육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삽니다. 그렇게 그 상태 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 내 육신 또한 그곳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즉 상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상태는 현실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의 상태에 충분히 머문다면 그 상태는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행운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어떤 일이 삶 속으로 들어오더라도 외부의 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아 자신에게, ‘내부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하는 데에 주



저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왜 우리의 상상력인 하느님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외부의 하느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하느님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방해할만한 외부의 힘이 세상에는 존재합니까? 그 상상속의 모습이 현실이라는 느낌을 방해할만한 외부의 힘이 존재합니까?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현실 같도록 생생하게 상상했다면 결국 그 상상은 육신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바로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정도로 담대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면, 돌아가서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인간의 관습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느님의 법칙을 무시하

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잔을 닦고 항아리를 닦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들을 지키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관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성스럽게 여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느님의 법칙을 말하시자,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대가 하느님의 살아있는 사원이고,
하느님의 영이 그대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대 안의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더라.”

외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지 못하다면, 다음의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더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언젠가 구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는, 마음의 거인을 여러분이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구세주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떤 호칭들을 사용했는지 열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Redeemer), 구세주(Savior), 유월절(Passover), 두 번째 사람(Second Man) 그리고 모든 민족의 열망(The Desire of all Nations)이라 불립니다.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

는 사람, 즉 두 번째 사람은 상상력의 주체로서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감각이 전해주는 증거들과 이성이 전해주는 것만을 받아들이면서 두 번째 인간은 가둬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면, 왜 그를 유월절(Passover)이라 부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떤 힘도 상상 속에서 어떤 장소에 머무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은 지금 현재상태에서 원하는 모습의 상태로 옮겨(pass)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원하는 그곳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런 후에 원하는 그곳에 서서는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소망하는 상태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지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를 굶기는 일입니다.

만약 원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그곳으로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처소를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태 안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진리를 그대로 잘 실천하여 내

부의 그리스도를 깨우기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감각들을 쫓아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는 내부의 그리스도가 잠들어 있었지만 감각의 증거를 완벽하게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구세주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이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중재자라고 자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중재자에게 등을 돌립니다.

구원자야말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문자 그대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어떤 신성한 존재가, 여러분이 인간의 관습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잠재의식’에 대해 살펴보면, 사람들은 명확한 의미 없이 인체의 부속기관을 말하는 것처럼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상력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나의 잠재적인 마음’, 혹은 ‘나의 무의식적인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마음상태를 일컫는 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상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세상처럼 잠재의식도 형체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부세상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이로운 상상력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제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것들과 믿고 있는 것들 모두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이 꼭 진리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가까울 필요도 없고, 그냥 나의 선입견이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미신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은 어떤 종류의 모습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들인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잠재의식의 내부구조에 맞추어 외부세상은 세워집니다. 따라서 외부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부의 구조, 즉 두 번째 인간인 상상력에 변화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관찰해 상상력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 습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생각 위에 습관적으로 있다면 타인을 비판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타인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소리만을 듣습니다. 잠재의식은 그렇게 습관에 맞춰서, 습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만약 외부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외부세상이 내부의 구조, 즉 두 번째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



고 다른 이들의 칭찬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살펴봐서 내부의 구조가 드러난 것들, 내부의 구조가 형체를 입은 것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나의 양떼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고, 타인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하느님 아들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의 모습이 바뀐 것에 맞춰, 외부세상에도 그에 따른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진리를 좋아해서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대답하시다면, 저는 지혜로운 자들조차 꿈꾸지 못한 세계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잠에 들 때 더 이상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의식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실제로 숨 쉬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의 출입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그 세상은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나 밤마다 잠에 들 때 들어갈 수 있는 차원적으로 보다 더 위대한 세상이며, 그곳에서 지혜로운 자들조차 생각 못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여기에 모인 4주 동안 의식의 힘(Power of Awareness)을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저에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이 진리의 살아있는 증거의 열매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된 것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성취된 상태를 강렬하게 인식하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을 묘사할 때 소망이 성취된 상태에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내부의 자아는 항상 습관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자아의 습관적인 움직임을 따라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으로 잠재의식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느낌이 잠

재의식의 자연스러운 옷이 되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내적인 변화에 맞춰서 외부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힘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 여러분은 마치 바람처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는 2천년 전에 살았다가 여러분을 위해 죽었고, 그의 죽음으로 구원되었다는 믿음을 계속 가지려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자아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은 인간의 거대한

관습에 또 한번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으로부터 일어나와, 여러분의 상상력이 스스로를 관찰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구원자를 내부에서 발견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느님이라 부르는 궁극적인 실체, 즉 고대인들이 ‘아이엠(I AM)’이라 정의한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경이로운 의식이라는, 고대인들이 내린 것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잠재의식, 즉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상상력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양떼에게 진정으로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고 다시는 여러분의 구세주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자에 앉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상상력을 아름답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했으면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마치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첫째 절에 나온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어라.”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를 모방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부르시더라,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게 되더라.”

바로 이것이 나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존재 안으로 불러내는 방법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상상 속에서 음성을 불러낼 것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내가 보기 원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볼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보는 것을 계속한다면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모방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으로, 즉 객관적인 세상 안으로 내가 듣고 보던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들을 불러낼 것입니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CHANGING THE FEELING OF “I”

“나”의 느낌을 바꾸기

이 문을 나가 버스를 탈 때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계속해서 지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자신을 속박했던 한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가장 소화하기 힘든 가르침은
여러분, 오직 여러분만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에 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
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현현되어 나온 것이 우
리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둘러싼 환경

과 지금 처한 상황들 그리고 삶의 조건들은 단지 개개인이 머물고 있는 특정한 의식의 상태들이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상태에 따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부의 마음구조를 바꾸지 않고 외부세상을 바꾸려는 이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법칙에 따라 이 모든 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그들이 그걸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상관없이 의식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내부의 본성이 비추는 대로 외부세상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저는, 여러분 자신의 존재(individual identity)와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the state)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이나 저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상상력(imagination)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자신의 존재는 어떤 상태 안에 들어가서 그 상

태를 자기자신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떤 상태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나의 느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이들이 떠나고 소수의 사람만이 남게 됐다고 합니다. 바꾸어야 할 것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다고 예수가 사람들에게 말하자, 그곳에 있던 이들은 그 가르침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그 진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느니라.”

그렇게 세 번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를 떠났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개를 돌리고는

“너희도 또한 떠나겠느냐?” 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되,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그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지금까지 나의 불행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해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즉 나의 행운과 불행을 만든 유일한 이가 바로 나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나이다. 누가 그것을 듣겠나이까?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나이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신성하게 만들어,

그들 또한 진리를 통해 신성하게 만드노라.”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이 세상에서 바꾸어야 할 다른 누군가도 없고, 완전하게 만들어야 할 다른 이도 없고, 죄를 씻겨내야 할 다른 이도 없이 오로지 나 자신만이 바뀌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품고 있는 자아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도 자아의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자아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I)’는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받아들인 모든 것과 믿어버린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형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미신과 선입견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신과 선입견은 형체 없는 ‘나’인 내면의 구조를 통해 우리를 에워싼 환경이나 삶의 조건으로 형성됩니다.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다음 성경구절을 다시 한번 꼼꼼하

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느니라.”

“그대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그대를 선택했더라.”

“그 누구도 나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없고,
나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뿐이라.”

“내 마음속 내부에 박힌 것을 뺏어갈
외부의 힘이란 없더라.”

“그대가 나에게 준 모든 것을 나는 지켰나이다.
그리고 잃은 것은 오로지 멸망의 아들,
즉 멸망에 대한 믿음뿐이나이다.”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린 것이란 없고, 오직 잃
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만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가 나에게 주었던 선한 것들 중 어떤 것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신성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통해 그들 또한 신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선 ‘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자아의 모습은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저급한 창조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 저급한 것들을 가까이로 끌어들이는 것이 하느님 자신이었다면 여러분은 수탉이 울기도 전에 천 번은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제껏 여러분 주변에 가져와서 보호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했던 것이 자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에 대해 비판 없이 관찰을 해서 자아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그렇

게 발견한 자아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의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시선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자아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가 어떻게 보이는지 말할 수 있고, 보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보는다면, 여러분의 눈에 비친 그것들은 여러분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발견한 자아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덕목들을 받아들여 적을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이를 축복해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생명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나눠줬던 존재, 옷을 나눠 입혀주었던 햇빛은 존재, 보살핌의 손길

을 보내주었던 존재 그리고 가장 커다란 적으로 느꼈던 존재가 바로 나의 자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 내가 갖고 있는 여분의 옷을 벗어서 다른 이에게 입혀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자아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도시의 호수 근처인데 이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시리즈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를 시작되기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와 이야기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없어요.”

“하지만 네빌, 당신은 제 문제를 몰라요. 건강

따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문제는 바로 낳 때부터 갖고 태어난 피부색깔 때문이에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죠? 제가 보기엔 아주 완벽합니다.”

“제 피부 색깔을 보세요. 이렇게 태어나서 저는 계속 차별 받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따위는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단지 제가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곳에서도 출세할 기회 따윈 없고, 이사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사업을 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사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물론 저는 피부색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있었던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네빌, 그런데 그건 내 문제와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와서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제 문제와는 정말 달라요. 게다가 전 미국인으로 태어났는데도 그런걸요.”

전 그 말을 듣고는 뉴욕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누구에게서 이런 것을 배웠는지, 스승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압둘라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그분 밑에서 5년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압둘라 역시 그 신사분처럼 흑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이 자신의 피부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흑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하느님이 만든 자신에게는 완벽함만이 있기에 어떤 고쳐야 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압둘라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핑크스 사진을 본 적이 있나?”

“예.”

“그건 우주의 고정된 네 가지 방위를 형체로 만든 거네. 사자, 독수리, 황소 그리고 인간이지. 그런데 그 머리는 인간의 머리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가 낸 수수께끼를 여전히 풀지 못하는, 그 스핑크스라 불리는 것의 꼭대기는 인간의 머리가 놓여 있네. 네빌, 그 머리를 한번 자세히 보게. 그 머리를 만들었던 이는 흑인이었음을 짐작

하게 될 거네. 분명 스프링크스의 머리를 만들었던
이가 누구였든 간에 흑인이었을 거네. 그리고 지
금까지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수수께끼를 풀
지 못하고 있다면, 난 정말 내가 흑인인 걸 자랑
스러워 할 수밖에 없네.”

저는 압둘라의 주변에 많은 과학자와 의사 그
리고 법률가와 은행가를 비롯한 모든 계층의 사
람이 그를 만나려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압둘라
의 집에 들어와서 그와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
도 그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딘가로 초대되어 나갈 때면 언제나, 가장 대접
받는 손님이었습니다.

“네빌, 자아를 가지고 시작해야만 하네.

자아를 찾게.

자네가 이제껏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돼도

부끄러워하지 말게.

자아를 찾아서 그것을 바꾸는 것을 시작하게.”

그래서 압둘라가 제게 가르쳤던 것을 똑같이

이 신사분에게 말해줬습니다. 자신의 마음구조
외에는 어떤 원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요. 그
신사분은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
게 아무리 많이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그가 차별
받았다면 피부가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차별받는다든 사고를 마음 안에 만들
어서, 비난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주변에 끌어
당겼기 때문에 차별받는 모습이 존재했던 것입
니다. 인간의 마음 외에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
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 주어졌던 한계들을 받
아들었고, 어린 시절을 통해 조금씩 제약하던 것
들을 또 받아들였고, 그렇게 한계 속에 묻혀 있
는 것을 자신이라 믿으며 자란 그 신사분의 마
음으로 인해, 실제 그런 한계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이 진리 때
문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
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내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네빌이라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저의 내면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존재가 부른 것들이 제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존재는 믿음에 대한 총계이며 스스로가 비추는 것에 맞춰 주변의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자 신사분은 돌아가서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신사분은 제가 말했던 모든 것을 그날 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그가 다시 로비로 찾아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를 건넌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가르침에 대한 열매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 신사분이 말했습니다.

“네빌, 정말 제 마음속에 박혀있던 한계들을 극복하기까지 거의 3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극복해냈죠. 이제 여기 월셔 블레바드(Wilshire Boulevard)가 제 사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만 저에게 제안을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 좋은 장소를 네 군데나 더 제안 받았어요. 통신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

한 거긴 한데, 다른 곳도 아주 멋진 장소였죠. 제 수입이 얼마인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걸요. 모든 일이 정말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네빌, 올해에만 250,000달러를 벌어들였어요.”

미국에서 이 정도의 수입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250,000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것은 미국사회의 상류계층에서도 높은 소득수준입니다. 이 사람은 몇 해 전만해도 피부색 때문에 세상이 자신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말했습시다. 하지만 이제 자신과 하나된 의식 상태가 세상으로 나타난 것이 자신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택은 그의 것입니다.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한계 속으로 다시 걸어 내려가거나 그가 이제 새롭게 찾아낸 자유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 올라가든가, 그 선택은 바로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목적을 뚜렷이 하고, 계속해서 목적을 마음속에 채운다면 원하는 어떤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습관처럼 배여야 합

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날 때에도 지금 입고 있는 고귀한 관념의 옷을 잠시라도 벗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을 나가 버스를 탈 때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계속해서 지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자신을 속박했던 한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가장 소화하기 힘든 가르침은 여러분, 오직 여러분만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에 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등을 돌리어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위대한 진리로부터 떨어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다시는 그 진리와 함께 하지 않았고 소수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

면 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그 시대에
만 통하던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법칙
이고 나의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작용되는 것이
라면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진리라면,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지금 당장 배우겠습니다. 설사 그
신사분이 했던 것처럼 3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
과의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나’의 느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수
히 많은 상태가 무한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는 상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상
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그 상태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그
것과 하나인 것처럼 느낍니다. 어린 시절에 주
어진 한계를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 한계
와 하나 되어서는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렸습니
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뿌리 박힌 생
각들을 ‘나’에게서 풀어내는 데에는 3년이란 시
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아주 순식간
에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신사분처럼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이 그 시간을 결정합니다.

느낌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작은 모임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고 세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이전에도 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돈을 벌어들이는 데에 필요한 누군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하기 위한 재산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저는 그 신사분에게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들어가 봤지만, 그의 장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신사분이 이 이야기를 저에게 자발적으로 해줬고, 그 해에 250,000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해보지

는 았았지만 어쨌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이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서 원하는 모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색을 바꿀 필요도 없고, 말투나 피부색이나 인종적인 배경 따위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장애를 느끼고 있다면, 오직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의식 상태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마음상태로 인해 한없이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끝없는 속박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전의 상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래요 ‘고집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오로지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지나가다가 나의 상처에 잠시 귀를 기울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진정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자신을 흔들어내고는 확신에 차서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선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주기도문(Lord's Prayer)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복음 전도자(the evangelist)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한 번역본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번역본인 패러 펜턴(Farrar Fenton)의 책을 보면 당위적 수동형(imperative passive mood)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주를, 명령을 하면 모



든 것을 다 갖다 줄 수 있는 거대한 자판기처럼
바라봅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뜻은 이루어져 있음에 틀림없고,
그대의 왕국은 재건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현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위적 수동형(imperative passive
mood)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성경은 라틴
성경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는 수동적 명령형
의 첫 번째 아오리스트(역주: 당위형 + 수동형의 문법구
조를 말한다)를 나타내는 문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
다.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열쇠를 제공해주지 못
하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지
금 존재하기에 만들어내야 할 것이란 없다는 것
을 깨닫게 된다면 단지 원하는 상태만을 골라
내면 됩니다. 그 상태를 점차 차지해나가다 보
면 마치 그것을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지만, 그

것은 이미 모든 존재의 세세한 부분까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차지하는 것이 마치 그것을 서서히 펼쳐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상태는 이미 완벽하게 끝나쳐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원하는 모습을 고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고르시고는, ‘나’의 느낌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자, ‘나’의 느낌이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선 삶에 대한 나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살펴본 후에, 내가 선택한 것과 하나 되었다고 생각될 때 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생각된다면 나의 반응을 관찰해보십시오. 만약에 세상에 대한 반응이 이전의 반응과 같다면, 내가 선택한 것과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응이란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면 삶에 대한 반응도 자연스럽게 변했을 것입니다

다. 그래서 ‘나’의 느낌이 변했다면 나의 반응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은 또 환경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을 주의하십시오. 감정이 잠깐 변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잠깐 감정을 변화시켰지만 그것은 또 상반된 감정 속으로 아주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신사분처럼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신의 분위기, 즉 의식의 상태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의 이성이 거부하던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은 그 상태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그 상태에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태가 견고하게 자리잡아 그것들과 경쟁하는 상태들을 쫓아낼 정도가 되면 그 상태는 의식의 중심에 자리잡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는 나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진

정한 변형과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견고한 마음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이 내적인 변화에 맞추어 나의 세상이 스스로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돕고자 나의 세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자발적인 충동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써놓은 대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의 의식상태에서 다른 의식상태로 옮겨갔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관계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관계는 나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은 나에 대해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는 것은, 욕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욕망에 대해서는 내일 밤 강연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욕망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해야

만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상과 충분히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완전하게 사랑에 빠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세상 안에 그 이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패한다면 그것은 변화를 일어나게 할 만큼 열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든가 아니면 진정으로 변화를 일어나게 할 정도의 충분한 충동 혹은 열망을 가지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나’의 느낌을 변화시킨다면 세상에 대한 반응은 그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된 반응은 세상에 변화를 또 불러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상이 마음에 들고 흡족하게 느낀다면 신비의 여정으로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의 커다란 지복은 만족해하지 않는 자에게 드러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받느니라.”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야(poor in spirit)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종교에 만족해하며 불만을 느끼지 못하고 바뀔 마음조차 없는 사람은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그곳에는 하느님의 왕국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의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아 자아를 바꾸려는 충동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자신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이의 자아에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바꾸는 날, 그날은 여러분의 세상을 바꾸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강의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에 계속 오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강의에 올 때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참석한다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

할 겁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강의에 참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이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려 한다면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그런 도전을 진지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저와 함께 이 잘 차려진 만찬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15일간 저녁 시간에, 이 도시의 에펠극장에서 강연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강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각 날짜의 강연주제를 보고 마음에 드는 날짜에 오십시오.

내일 밤 강연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고, 목적을 갖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 진행할 것인데 이것은 아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정처 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내는 자는 모든 것에서 흔들리니,
그런 사람은
주님의 어떤 것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바람에 나부끼고 흔들리는
파도와 같기 때문이더라.”

그런 사람은 결코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일 저녁에 욕망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어떤 학파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죽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욕망을 강렬하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를 보여드릴 것이고 성경에서는 욕망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젠, 오늘 많은 분이 질문했던 기도의 방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일요일에 오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방법은 평

장히 간단합니다. 일요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상상력을 사용할 때,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을 드러내십시오. 조용하게 앉아 우리의 아버지를 따라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앉아서, 우리가 소망을 이룬 것을 누군가 보고는 축하해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서서 그때에 들었을 만한 것을 듣고, 보았을 만한 것을 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약 2분 정도 침묵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불을 낮추겠습니다. 만약 목이 불편하다면 기침을 하도록 하십시오. 의자에서 자리가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자세를 바꿔보십시오. 집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만약에 옆 사람에게 방해가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면 상상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제 저도 자리에 앉아서 주의를

기울여 내부의 소리를 들어볼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 드리죠. 마음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때가 오면, 외부의 소리처럼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YOUR SUPREME DOMINION

최상의 지배권

옅은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 한가운데에서
올바름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은
자신을 결코 가혹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올바름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옅처럼
올바름을 잡고 놓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의 주제는 ‘최상의 지배권’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지배권을 여러분은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창세기 첫 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자신의 형상에서
인간을 만드셨으니,
하느님의 형상 안에서 하느님은 그를 만드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더라.”

그런 후에 하느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결실을 맺으며, 번창하며, 가득 채우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날아다니는 것들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지배하라.
그리고 하느님이 자신이 한 모든 것을 보시더라.
하느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러니 그것들이 매우 좋더라.”

성경을 마음에 관한 진리를 나타낸 것으로 보
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
한다면 창세기의 저 구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나 창조
의 역사를 적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닌,
마음에 관한 진리를 담은 위대한 책으로 이해한
다면 가장 위대한 책을 그제서야 훑듯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마음에 관한 진리를 담은 책으
로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인간을 가리키
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인간 안에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로 상징
되는, 모든 열망과 감정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
의 깊은 곳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물고기로 상징되
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로 상징되었습
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우리자신입니다. 인간을 정복했을 때 약속
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인간이라는 넓고 경이
로운 땅 위를 지배하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이 우리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세상이란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작은 존재로 느낍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메뚜기로 부르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을 메뚜기라고 불렀기에 자신을 둘러싼 것들이 거인들로 보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인들, 이를테면 산업이란 거인들과 경제란 거인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라는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작은 존재로 느낍니다. 인간이 자신을 지배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미 의식의 영역 안에 최고의 지배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식의 영역 안에서 인생의 모든 드라마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때서야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느님에게서 쫓겨난 이들을 위한 유배지’로 보는 잘못된

판단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살아있는 의복이자 하나의 음성입니다. 베일 뒤에 숨겨진 것들과 마음의 장막 뒤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통역이 필요한 불협화음으로 들리겠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의 똑똑한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숨겨진 원인들을 찾기 위해 우리의 시선은 내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어떻게 헤엄치고, 이것들이 바깥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깊은 물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곳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아직 이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이 이 가르침을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에 따라 세상에 펼쳐진 투쟁적인 모습을 하느님의 정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정원은 에덴이라고 불립니다. 이 정원을 잘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 인

간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정원은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살지 않는 야생에서는 정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무와 꽃이 자리한 곳에 인간이 없다면 그곳은 야생의 숲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야생의 숲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던 잘못된 생각이라는 나무와 씨앗은 베어지고 파헤쳐집니다. 여러분은 그 땅을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경작하여, 그곳에 유익한 씨앗을 지혜롭게 뿌립니다. 여러분이 맞이하고 싶은 생각을, 바꿔 말하면 일구고 싶은 씨앗을 고르고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여러분에게는 지배의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일군 것들이 여러분의 외부세상에 그 결실들을 계속해서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살아있는 의복 안에 나타내고 싶은 것만을 고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싼 드넓은 세상은 아버지가 입고 있는 살아있

는 의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결실들을 수확했습니까? 하느님은 자신의 형상 안에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정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것을 알고 싶다면, 그것을 보고는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분석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 외관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영적으로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사랑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하느님은 자신이 아닌 외부의 어떤 것에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됨으로써 나를 창조했습니다. 하느님이 내가 되는 것 이외에 나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알고, 그것들을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인간이 됨으로써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은 나에게, “나가서 이 땅을 돌보고 이곳을 다스리라. 그리고 지배권을 가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나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땅입니다. 나는 하느님이 일구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나’라는 땅을 일구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이 됨으로써 세상을 일궈줍니다. 나는 이제 인간으로서,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이 땅을 일굽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으로서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나눠 놓고, 그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하나 되는 방법을 통해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느님이 내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원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 존재 안에서 삽니다. 그렇게 ‘나’와 하나된 것에 육신의 옷을 입혀 현실로 불러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들이 그 본연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세상에 나타난 내 것 중 어떤 것도 빼앗길 순 없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세상, 친절한 세상, 안정된 세상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모든 아름다운 것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 안에서 살고 있는 내가 이런 사랑스러운 것들이 그 본연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상태로부터 나를 스스로 분리시키지 않는 한, 세상 어떤 힘도 내게서 이런 것들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일구기 시작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상태와 사랑스럽지 않은 감정의 잡초를 뽑아내고, 외부 세상이 아닌 이런 내적인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자아 안에서 일궈낸 것들은 외부 세상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럼,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창세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완벽한 확장입니다.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을 일구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역시 야곱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야곱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일을 올바름(righteousness)으로 이뤄냈습니다. 야곱은 올바름을 통해 그 일을 했고, 그가 가진 것들은 넘치도록 많은 양으로 불어났습니다. 양과 소는 셀 수 없이 불어났고, 그의 여종과 하인 그리고 낙타의 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올바름이 장차 나를 위해 대답하리니.”

올바름은 올바른 의식을 말합니다. 올바른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식을 가져야만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태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는 원하는 상태를 볼 수 없지만, 그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과 하나

가 됩니다. 이것은 깊은 물속에 낚싯대를 드리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 깊은 곳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느낌을 가져서 소망하는 상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세상 안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넘치도록 확장시켜나갈 야곱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사람은 읍입니다. 여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재앙, 그 한가운데에서 읍은 말합니다.

“나는 나의 울바름을 잡고 놓지 않으리니,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마음이 나를
가혹하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더라.”

그는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즉 세상의 모든 문제 한가운데에서 울바름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
니다.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

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은 자신을 결코 가혹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올바른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이 땅의 길들여진 자(meek)는 올바른을 구하니,
이 땅을 받을 자는 길들여진 자(meek)이더라.”

길들여진 자는 땅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길들여진 자는 메뚜기처럼 땅에 엎드려서 비굴한 태도를 취하는 자를 뜻한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길들여진(meek)”을 올바르게 해석해본다면 야생 동물이 길들여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고 자신의 존재를 길들여서 어떤 일이라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길들여진 자이고 그렇게 길들여진 자가 땅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길들여진 자는 항상 올바른을 구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부터 이 땅을 정복하기로 마

음먹었다면 올바름을 나의 슬로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올바르다면 내가 심었을 나무와 꽃을, 내가 키웠을 동물을, 그리고 내가 잡았을 고기를 지금 선택해서는 소망하는 상태로서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 애도하는 것이 아닌 기쁨의 영광 같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좋은 것 모두는 이런 것 위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좋다고 불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좋다고 부른다면, 그것들에게는 올바른 판단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의 감각은 그 판단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나의 이성도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나의 정원을 가꿀 사람은 나이고, 이 정원이야말로 유일하게 돌봐야 할 정원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정복해야 할 유일한 땅이라는 것을 알아서 지금 바로 가꾸기 시작하여 아름다운 것들을 담대하게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항상 아름다운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

됐듯이 나도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득 채워진 아름다움을 세상에 펼쳐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에 개의치 말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하여 그를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들도 그 모습으로 보게 되는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하지만 어떤 이가 그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그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의 육체를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가 이미 자유롭다는 참 모습을 기억 속에 간직하십시오. 이것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중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때 지배의 권능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이 여



러분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됩니다. 인간은 이런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정신적인 세상입니다. 모든 동물이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 땅입니다. 감정 모두는 동물로 상징됩니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생각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여러분이 단지 올바르게 그물을 던지는 방법을 안다면 잡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낚시를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에 그물을 올바르게(right side) 던질 수 있는, 의로운(righteous)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던지고, 항상 올바른 쪽으로 던집니다. 여기서 올바른 쪽(right side)이란 올바름(righteousness) 혹은 올바른 의식(right consciousness)을 나타냅니다. 올바르게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나타나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눈에는 고기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그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것을 확인할만한 감각의 증거를 기다



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은 울바름으로 여겨지니.”

그래서 나는 깊은 곳 세상에 대해 믿음을 지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믿음을 지닐 것입니다. 아직은 그 물고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 대한 존재와 그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간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외부세상으로 가져올 때마다 아버지의 멋진 의복에 아름다움을 하나씩 더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자 저의 의무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이 자신을 뜻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원의 한가운데에 머물도록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머물고 있는 그곳을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지하고 유지하라, 그리고 잘 일구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무언가가 방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해물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상태는 존재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의 세상 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여러분의 정원에 어떤 것이 모습을 드러냈는지를 보고, 정원에 어떤 것을 심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이 아닌 잡초를 발견했다면 잠시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발견한 즉시 잡초를 뽑아내고 새로운 정원으로 가꾸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정원을 지배하기 시작하십시오.

길들여진 자가 되십시오. 길들여진 자는 확신

에 차 있습니다. 길들여진 자는 도움을 얻기 위해 누군가 다른 이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는, 확신에 찬 가슴을 지닌 자입니다. 그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을 나는 새라고 표현된, 마음에 떠다니는 생각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인, 그것과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물을 아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 안에 존재함으로써 사랑이 영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미 내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안정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나는 이미 건강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건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올바름은 장차 나를 위해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올바름(righteousness)의 이름

으로 이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야곱의 외삼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약조를 해야 하느냐?”

“특정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들만이 나의 것이라고 말해주소서. 그 외의 약속은 하지 마소서. 그리고 다른 보상도 다른 삿도 필요 없고 오직 얼룩진 송아지만이 나의 것이라고 약속해주소서. 소들은 얼룩진 것들이 없으나 얼룩진 모든 새끼들은 부모들이 얼룩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나이다.”

“그것은 나의 보상이고

나의 울바름은 장차 나를 위해서 대답할 것이라.”

그리고 야곱은 그의 세상이 얼룩진 송아지들로 가득 차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건강한 새끼들은 모두 얼룩지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상상, 그 이상으로 확장해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야곱이 시작했던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얼룩지지 않은 소들이 낳은 송아지가 얼룩져 태어나게 될 거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얼룩지지 않은 소들이 얼룩진 송아지를 낳게 되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송아지 수는 천 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었고,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사업에 관한 것으로 빗대어 생각할 수도 있고, 의사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최종적인 진단을 내린 것에 빗대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더라도 여러분에게 상처주거나 놀라게 하지 않도록 자신의 판단을 말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의사는 자신이 내린 진단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법칙은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리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일이나 어쩌면 다음 날에도 나무가 모습을 드러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올바름은 여러분에게
머지않아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격정
의 한가운데에서 사지로 내몰렸을 때조차,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의식을 꼭 잡고 자신
의 가슴이 자신에게 가혹하게 말하지 않도록 했
던 읊처럼 하십시오. 읊은 죽음의 결말을 맞이하
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결말을 잘 알고 있
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름으로써 죄들을 씻어버리고,
빛나간 과녁들을 없애라.
올바름을 갈망하고
올바름을 쫓는 자들은 축복을 받으니,
곧 그들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올바름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에게 더해질 것이더라.”

하느님의 왕국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여러 번
에 걸쳐 말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
를 반복합니다.

“하느님의 왕국과 하늘나라의 왕국은
그대 안에 있으니.”

그것들은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
러분은 바깥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찾는 듯합니
다. 바깥세상은 단지 하느님의 왕국이 존재하는
내부가 비춰진 것입니다.

이제 내부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느님의 올바
름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
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가졌을 만한 감정을 사실
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할 수 있는 한 그 감정 속에서 머무십시오. 그리
고 그 올바름이 자신 위에 어떤 것을 가져오는
지 보십시오. 올바름이 가져오는 것들은 항상 그
올바름의 성질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 성질과
관계없는 것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

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과 모순되는 사건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의식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27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서
인간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드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더라.”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면 약속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좋고 아주 좋더라.”

여러분이 지금 일궈야 하는 땅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라는 땅을 일궈낸다면 많은 결실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확은 늘어갈 것이고 이 세상을 정말 가득 채울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이 황무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면 결국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정복해야 할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뜻을 잘못 이해하고는 자아를 쳐부순다 생각하거나, 자아를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작은 공간 안으로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인생으로부터 달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인간이라는 투쟁의 상태를 길들여진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외부의 환경들에 맞서 싸우지 않고도 투쟁의 상태를 넘어, 길들여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란 것은 그것을 보는 자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에 분노의 마음을 지니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름에 믿음을 충실히 유지 못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에 믿음을 유지했었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의 올바름과 조화를 이루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저 오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은 하느님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일궈내기 시작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은 좁은 길을 유지해 걸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걸어나갈 것입니다.

경험상, 새싹이 솟아나는 것을 보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면 마음에 심어둔 씨

있는 온전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
아에 대해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십시
오. 여러분이 삶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어
떤 판단도 개입하지 않은 채 관찰해서, 그 땅의
있는 그대로의 현재상태가 어떤지 보십시오. 여
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땅의 상태를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 상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바다의 물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를 걸어 다니는 모든
동물을 정말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가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것들이 생각
과 욕망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변화하는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서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마음 안에 품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의식의 영역 안에서 최고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 위에만 머물러 여
러분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땅이 작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생명을 지닌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뿌리내려있고 여러분은 제 안에서 끝이 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느님 안에서 뿌리내려있고 하느님 안에서 끝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25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매년 그들은 보이지 않는 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세상 안으로 오고 나갈 때 세상 사람 모두는 실제로 여러분 안에 뿌리내려있고 여러분 안에서 끝을 맞이하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느님이라 부르는 궁극적인 실체 안에 뿌리내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활한 이 세상 전체는 단지 여러분 안에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새롭게 다시 배열해서 여러분이 살기 원하는 아름다움을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상의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최상의 것들을 불어넣으신 후에, 나아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었던 것을 밖으로 펼쳐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멋진 상태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쏟아 부어줄 것은 오로지 아름다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오직 좋은 것만을 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은 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옥한 땅입니다. 습관적으로 박혀있는 잘못된 생각의 나무들을 뽑아내고는 아름다움과 조화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새로운 씨앗으로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어놓은 씨앗에 맞춰 결실을 수확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에게 고귀한 옷을 입히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보다 더 멋지게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눈에 비치는 아름다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버지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추방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를 봅니다. 여러분이 나를 볼 때면 여러분은 나의 마음상태를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내가 사는 세상을 볼 것이고, 그것은 나의 아버지인 마음상태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투영된 것을 볼 때 그것을 아들(Son)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나의 세상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위치를 말해줍니다. 이런 모든 내적인 상태는 경이로운 의식 안의 장소입니다.

내적인 상태는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바깥세상에서 무엇이 보이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의복인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혐오스러워 보이든 아니면 아름답

다워 보이든 나의 내적인 구조를 보는 것뿐입니다. 나는 영원히 내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형상으로 나 자신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의식 안에서 나의 존재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서 올바른, 즉 올바른 의식을 구하겠다고 오늘 결심하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곧 수확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제 인생에서 어떤 고귀한 목적을 뽑아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하나의 원하는 상태로서 명확하게 한 후에, 아주 간단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고귀한 상태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의 느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현재라는 곳의 외부에 실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지금 느끼는 객관적인 현실과

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이곳처럼 체계를 지니고, 깊은 곳 안에 실체를 지닙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고 자신에게 묻는다면 하나의 느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정이라면, 만약 그것이 건강이라면, 만약 그것이 어떤 상태라면, 그 물고기는 여러분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깊은 곳 안에 놓여있고, 여러분은 그 느낌 안에 ‘나’를 놓습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성경에 서는 3일 안에 여러분을 “메마른 땅에 도해내게” 될 것이라 합니다. “3”은 3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3”은 충만함과 완벽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현실처럼 느껴져, 현실과 같은 감각적 생생함을 지닐 때까지 3일 동안 그 물고기 배 안에서 살게 된다면, 그때 나

는 성경에서는 “땅” 또는 “메마른 땅”으로 표현된 객관적인 실체 안으로 나를 토해낼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실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실체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3일 동안 그 느낌 위에서 타고 지낸다면 만족함과 실체라는 느낌을 얻을 때까지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 안에서 여러분은 올바른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의 올바른은 장차 여러분을 위해서 대답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고,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참조 구절〉

그때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밤을 있었더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냈더라.

SOUND INVESTMENTS

확실한 투자

그대의 생각과 그대의 시간과
그대의 돈을 소비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삶의 모든 것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제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
금까지 세상에 드러난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라
고 생각되는 것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에 제 아내가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아내는 어떤 뚜렷한 음성을 들었습

니다. 그 음성은 아주 위엄있게 들렸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과 그대의 시간과
그대의 돈을 소비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삶의 모든 것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

아내는 일어나자마자 들은 것을 빠르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장 속의 중요한 단어인, ‘소비’와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소비’에 대해서는, ‘헛되이 쓰는 것, 낭비하는 것, 돌려받는 것 없이 써버리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었고, ‘투자’에 대해서는 ‘이득이 기대되는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과 그대의 시간과
그대의 돈을 소비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삶의 모든 것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

곰곰이 이 말을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현재(NOW)에 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라는 문을 통해서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을 인식하는 상태인, 이 정신적인 현재(NOW)는 과거 속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미래를 향해 다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하늘나라의 동전이자 하늘나라의 화폐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 내가 받아들인 생각이 그러합니다.

“모든 것은 그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빛에 의해서 모습을 드러내니,
모습이 드러나는 모든 것은 빛이더라”

에베소서의 윗 구절에서 ‘빛’으로 표현된 것은 의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아들인 상태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

러난 모습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드러난 의식의 상태일 뿐이고, 나의 의식이 어떤 상태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게 다가오는 시간을 소비해버리거나 투자를 하는 중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하늘나라의 동전을 대부분 소비해버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부정적인 상태 속에서 매 순간을 소비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동전을 쉽게 소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순간을 투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자산을 결국에는 되돌려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 아침이면 투자의 시간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보는 동안 잠시 고양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과도하게 냉소적이지만 앎다면 찬송가에 도취되고, 독주와 오르간 음악과 목사님의 설교로 인해 고양된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벗어난 나머지

시간은 소비를 하며 지낼지도 모릅니다.

만약 어떤 큰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규모가 굉장히 크고 무척 건설하다면, 결산기에 예산을 재편성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이득을 배분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상의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에 투자한 돈을 쓰려 한다면 아무리 그 회사가 든든하고 건설하더라도, 그 이득을 배분할 때 여러분은 주식을 팔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건설한 회사의 주식으로 여러분은 매 순간 막대한 자산을 형성했을 수 있었지만 일상의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매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 순간을 긍정적인 생각과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데에 바친다면, 마음속에 품은 그 소망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뚜렷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만약 받아들이다면 여러분은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거부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즉 완벽한 무시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 대신에 여러분이 들었으면 소망하는 것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로부터 등을 돌리고 완벽하고 진정한 실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로 받아들여 그 존재를 인정한 것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분은 소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투자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 제게 전해진 이 계시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위대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성경만의 독특한 운율에 맞춰 이렇게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하느님은 그녀에게 오늘 말씀을 걸어오셨고, 하느님의 종인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성경의 방식대

로 나머지 진리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평범한 제 아내에게 전해졌고, 평범한 방식으로 아내와 저를 가르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너무 값진 것이고 이 순간은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 멀리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순간들은, 만약 소비되었다면 낭비된 것을 나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현재의 순간들이 투자되었다면 아름다운 것들을 돌려주기 위해 항상 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만약 투자를 한다면 하나의 기대되는 이득을 위해 시간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것이 가져다 줄 것들을 희망합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그 보상들을 기대하고 나의 투자에 대한 이득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내일은 거대한 배당금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지미 폴러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연이 끝난 후에 그리고 에벨 극장에서 강연이 끝난 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런 행운을 만들어낸 지미 폴러는 아마도 많은 자금이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신에 찬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 말이 옳다고 할 수도, 틀린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있는 듯 말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더 큰 이윤을 얻었다는 것을 저에게 확신시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는 지미에게 더 자세한 상황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미가 말했습니다.

“네빌, 당신이 4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당신이 하는 강의를 듣기 위해 여기에 왔었어요. 제 아내가 물었죠. ‘왜 네빌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듣기 위해 가려는 거죠? 어디서 네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전 어느 날 저녁 라디오에서 베일 박사가 하는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베일 박사에게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

거든요. 그가 하는 강의에 흠뻑 빠져있었는데 강의를 끝마치면서, 네빌 고다드가 우리에게 와서 강의를 할 것이라며 그것을 꼭 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베일 박사의 강의에 흠뻑 빠져있어서 그 다음날도 그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는 2주에 걸쳐서 계속 당신이 하는 강의를 선전했고 당신에 대한 칭찬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강의를 꼭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참석하는 데에 2달러가 들었어요. 제가 가진 돈이라곤 54달러 밖에 없었죠. 제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는 혼자 있기에는 너무 어려,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아내와 전 당신이 강연하는 곳에 모두 참석했죠. 하루는 돌봐줄 사람을 쓸 돈이 없어서, 그날 하루만 참석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강연하는 동안 아기 돌봐줄 사람을 구할 돈이 없었던 하루를 제외하고는, 전 재산이었던 54달러를 가지고 당신이 하는 강연에 모두 참석했어요. 네빌, 당신도 알다시피 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당신의 이론을 현실로 만들지 못했어요. 제 문제가 무언지는 이미 아실

겁니다.”

아마 그의 문제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흑인이었는데, 그의 문제는 검은 피부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차별이 놓여 있는 곳은 오직 자신의 마음 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한계로 받아들인 것이 한계를 만든다는 것을 말했고, 덧붙여 자신의 피부색깔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해져서 자신이 만든 한계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미에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지미는 완벽하게 이 진리를 받아들여, 매 순간을 투자하여 한 해에 순 수익만 250,000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동전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결코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미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푼도 없었고 오직 하느님의 동전만을 가지고 투자했을 뿐입니다. 하느님은 시간이라는 동전을 지미에게 주었

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니고 있는 생각이란 것을 낭비하는 대신에, 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낭비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현재라는 시간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돈이 없었지만 생각이 돈이라는 것을 알았고, 지금의 매 순간은 과거로 사라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투자의 대상이고 자신의 미래로 나아가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미는 더 나아가, 이제 자신의 손이 거쳐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황금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지미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이곳 주말 학교에 옵니다. 지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지니던 한계들을 아이들도 지닌 채 사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미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내와 함께 해변이나 산으로 가고도 싶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은 가지지 못했던 기회를 갖기 위해 이곳에

오는 거라고 자주 말합니다. 지미는 말합니다.

“제 형제들은 매우 종교적이에요. 하지만 매우 가난한 하느님을 숭배했었을 거예요. 형제들이 가난에 푹 빠져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전,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니는 교회 근처에는 가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가난이란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형제들은 빠지지 않고 그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마음의 과학 교회(Science of Mind Church)에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제 아이들을 이 학교로 데리고 왔었죠. 그 아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해볼게요.

“이곳에서 하느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제 아이들을 에워싼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오직 사랑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어느 날 저녁, 어린 딸이 굉장히 아프자 두 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일 누이가 건강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누이가 지금 건강하다는 것을 믿을 순 없었지만 내일 아침에는 나

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전날에 보이던 감기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딸아이는 완전히 나아갔죠. 이 두 아이들은 단지 감사를 표현했을 뿐이었어요.

“그 후에 아들이 장난감 대신에 진짜 시계를 원했어요. 전 아이에게,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라고 말하자 곧 그 말을 따랐죠. 그랬더니 학교 가는 길에 그것과 똑같은 시계를 주웠어요. 아이는 이제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죠. 의식 안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인 상태는 세상 밖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아내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저희를 쳐다보며 사달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내부의 아버지인 우리 모두의 아버지를 인식하기를 원해요. 물론 제가 우리 아이에게 선물을 사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아이는 저를 하느님의 힘이 주어지는 유일한 채널로 계속해서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법칙으로 사는 것을 봐야만 하

죠. 아이들에게 하느님이란 존재는 사랑이고, 유일한 실체이고, 그 사랑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주말학교에 절대 빠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지미는 단지 이 법칙을 받아들인 것만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제게 말해줬습니다. 지미는 말했습니다.

“제 차를 사게 됐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법칙을 가볍게 사용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카딜락을 운전하는 것을 상상했죠. 그것을 얻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단지 카딜락이 제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얻겠다고 마음 먹은 후 거래처와 전화 세 통화를 했고 그날 이 차를 얻게 되었죠. 이제 모든 일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제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대신에, 그 뒤에서 업무를 지시하고만 있죠. 저는 단지 앉아서 제 직원들이 전해주는 좋은 뉴스만을 들어요. 차를 타고 있을 때, 사무실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저는 좋은 소식만을 듣고 있어요. 사

실 사무실로 직접 일하러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뒤에 앉아서 좋은 소식만을 듣고 있어요. 이제 피부색깔이라는 것에 대해선 완전히 잊었어요. 그리고 네빌, 전 솔직히 제가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축복받았다고 이전 말할 수 있어요. 흑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지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했습니다. 지미는 처분할 부동산이 몇 개 있어서 광고를 냈더니 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둥이의 부동산은 원치 않소.”

지미는 이 말을 못들은 척 행동했습니다. 대신에 투자가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남자가 다시 전화를 해서 지미와 만나기를 요구했습니다. 지미를 보고 그 남자는 거의 기절할 뻔 했지만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37,000달러치의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이후로도 이 신사분은 지미의 부동산을 사는 데에 수만 달러를 썼고, 계속 전화를 걸어 지미의 뛰어난 투자실력에 대해 고마워

했습니다.

여기 자신의 피부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선입견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주어졌던 계시가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소비하는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압니다. 그리고 이 강연에서는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그 받아들인 것을 외부로 드러내고 여러분의 환경 안에 그 자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환경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증거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해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소비하는 것을 멈추고 투자의 기술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매 순간은 투자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동전을 투자를 하지 않고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지혜로운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오늘 내린 명령은
숨겨진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더라.
그것은 그대에게 가까우니,
그것은 그대의 입 안에 있고,
그대의 가슴 안에 있더라.
이제 나는 이날 그대 앞에,
생명과 선함,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를 내놓더라.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라.”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결정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놓습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지금 이 순간은 축복이거나 저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한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저를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고 받아들인다면 전 제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시간을 낭비했다는 증거를 저에 대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저와 제 강의를 좋아한다고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은 행동으로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 가르침의 진리를 한번 더 확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축복을 내릴지 아니면 나 자신을 저주하든지 그 선택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선택할 수도,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운 존재이어서 또한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내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우리의 재산을 소비하지도, 낭비하지도, 마구 쓰지도 말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매 순간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귀하고 훌륭하고 멋진 존재이며, 나의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이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나의 고귀한 관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진실이라고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신문 1면의 기사가 세상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

는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인정할 때만, 그 진정한 것들은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를 투자하기 시작하고, 이성
과 감각이 거부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것 안에서 살
기 시작한다면 만약 그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이
오늘이나 내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여
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살 것이고 하루 종일 그것에만 초
점을 두어 좋은 것만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이
런 행동이 투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이 투자에 대한 배당금은 반드시 돌
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존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
인 분들 모두, 이 진리를 가슴속에 간직하십시오.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지미 풀러는 돈
을 가졌던 것이 틀림없어요”라고 말한 사람들

에게, 이제는 지미 폴러가 돈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번에 저에게 찾아와 물었을 때는 그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서 자세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지 54달러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구하는 데에 필요한 1달러조차 없었는데, 그가 가진 54달러 전부를 제가 강연하는 곳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막대한 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미 폴러가 가졌던 54달러만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에 그리고 생각을 지금 안에 소비하는 대신에 지금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연단을 내려왔을 때 여러분은 어찌면 지금의 이 순간은 가버

렸고 그는 내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슬그머니 저쪽으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을 향해 나아가서는 내 주변상황과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현재 속에 존재하고, 이것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현재라는 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나는 문이다(I am the door)”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I am)’은 항상 일인칭(first person)에 현재형입니다. ‘나는 문이었다’고도, ‘나는 문일 것이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이다(I am the door).”

“나는 부활이다(I am resurrection).”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은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현재라는 문을 통해

서 지나가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은 나의 미래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이 현재의 문을
지나갈 때 소비하지 말고 투자를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현재라는 시간을 잘 투자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미래는 멋지고 건강하고 빛나는 시간
이 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에벨 극장에 여러분 전부가 오실 수는 없겠지
만, 저는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오셔서 풍성하
고 멋진 한 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문
으로 들어올 때, 한 여성분이 제게 다가와서 말
했습니다.

“네빌, 금요일 저녁에 당신이 저에게 어떤 것
을 명쾌하게 이해시켜줬어요. 그게 무엇이나면,
당신은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진리를 가르쳤는
데 그건 목적에서부터 생각하는 것(thinking from)과
목적을 생각하는 것(thinking of)의 뚜렷한 차이였죠.
당신은 이곳에서 강연을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했었는데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
데, 금요일에 드디어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시게 됐죠?”

“당신이 청중석과 연단에 대한 비유로 말한 것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좌석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과 목적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들었던 그 여성분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더니 지금은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에게 이해시킬 수 있기 위해서 그 예를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인생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한 후에 자신이 그 목적으로 삼은 상황 속에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하는 대신에 목적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하고는, 계

속 그 뒤에 선 채로 그 꿈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빛을 발산하고, 그곳으로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기 연단에 서서 청중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연단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기점으로 극장을 보고 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앉은 채로 아니면 2층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이 극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스크린과 연설자인 제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같은 극장을 보고 있지만 다른 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극장을 연단을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 보는 시선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제가 앉아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을 상

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 청중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보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제 뒤에 펼쳐져 있는 스크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다고 사실로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을 묘사할 것입니다. 저기 청중석의 자리가 안정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보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연단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안정의 상태를 원한다면 비록 저의 육체는 여기 연단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입증하기 위해서 안정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제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묘사합니다. 만약 제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봤던 것이 여전히 눈에 보인다면 원하는 목적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원하는 목적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thinking from)과 목적을 생각하는 것(thinking of)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에서 생각하는 기법,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신 후에,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그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난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의 느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성엔 여러분의 목적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혹은 세상 모든 것이 그것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목적을 차지해나갑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순간을 투자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싶었던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지미 폴러가 자신이 성공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었을 때 바깥쪽 인간이 취했을 만한 행동을 안쪽 인간이 취한다면, 분명히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명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안쪽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 인간입니다. 바깥쪽 인간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나의 안쪽 인간인, 내 안에 계신 아버지,
그 분이 일을 행하나이다.
내가 본 그의 행동은,
바깥쪽 또한 그렇게 따르게 되나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는 안쪽의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은 채로 편안하게 이 완을 하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한 후에, 욕망이 성취됐다면 바깥쪽 인간이 취할 행

동을 상상하십시오. 바깥쪽을 이완시킨 채, 내가 실제로 이미 그렇게 돼 있다 받아들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해서는 실제로 지금 그 일을 경험한다고 상상합니다.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육신으로 경험했어야 할 일들을 나의 상상력 안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안쪽 인간은 바깥쪽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상상을 마쳤다면 여러분은 안쪽 인간이 상상 속에서 했던 일들을 육신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들이 일치했을 때 세상 어떤 힘도 상상 속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항상 안쪽의 여러분부터 소망을 이루게 하십시오.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것을 직접 하기 위해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행사할 때면 우리는 실제로, 말 그대로 하느님을 인간에게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듣기

원하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어둠 속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2분의 시간은 투자의 시간이 됩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불을 낮췄을 때, 우리는 마치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 있고, 보기 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2분의 시간 동안 제 아내에게 들려온 다음의 경이로운 목소리를 실제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시간과 그대의 생각과
그대의 돈을 소비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삶의 모든 것은 투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WALK BY FAITH

믿음으로 걸어라

그 목적지에 다다랐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상태 안에서 일어나다면 반드시 성취해낼 것입니다.

블레이크는 다
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은 왜 다른 책보
다 흥미롭고 교훈을 주는가? 성경이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에게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인 상
상력에게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표면 위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소리로 생각해보십시오. 마치 깊은 내면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분별하는 마음이나 이성적인 마음에게 바로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음의 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후편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해서 걷더라.”

눈에 의지해 걷게 되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걸어나갈 길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음 속에서 보이는 것에 의지해 삶의 방향을 정하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거나 원하는 모습이 있을 때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속의 환경만을 변화시킨 채 이것만 보면서 믿음에 의지해 걸어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의 상태를 바꾸고, 바뀐 의식상태에 믿음을 유지한다면 마음 안에 서만 보이던 것이 외부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은
내 뒤에 놓여 있는 것들을 잊고,
내 앞에 놓인 것들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라.”

바울이 원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높은 부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일 뿐이고 하느님은 인간이기에, 모든 것은 상상력에서 비롯됩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다른 것은 상상력의 강렬함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낮게 조율한 채 육체의 눈이 보고 있는 것에 의지해서 걸을 수도, 아니면 상상력 안에서 믿음에 의지해 걸을 수도 있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 걷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건물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의지해 걸어나가려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역시,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제 형 빅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원했습니다. 형은 상상력에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1924년에 우리 가족은 돈 한 톨 없었습니다. 그때 형은 마음의 눈으로 빌딩의 이름을 우리 가족이 소유한 것처럼 바꾸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돈이 없었지만, 그때 그냥 알고 지내던 사람이 50,000달러를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주어 그 빌딩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년 전에 우리는 이 빌딩을 850,000달러에 은행에 매각했습니다. 게다가 바베이도스에서는 이렇게 얻은 소득에 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형은 매일

믿음에 의지해 걸어나가면서, 그 건물을 지날 때면 빌딩의 간판에 ‘로츠 상회’라고 쓰인 것을 보는 대신에 ‘고다드 상회’라고 쓰인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건물이 다른 이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형의 믿음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마음의 구조를 바꾸어가자 우리 가족의 운도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이루어졌음이라.”

오직 저의 형 빅터만이 상상력을 통해 세상을 봤습니다. 다른 이들은 ‘로츠 상회’라는 간판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았지만, 형은 ‘고다드 상회’라는 간판을 믿음에 의지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이가 블레이크에게, 그가 태양을 볼 때 무엇을 보냐고 물었습니다. 블레이크가 대답했

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무리지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라고 노래 부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나무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똑같은 나무를 각자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같은 힘을 사용하면서도, 한 명은 그를 궁핍한 사람으로 볼지도 모르고 다른 이는 부유한 사람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힘도, 육체의 눈에 의지해서 사는 힘도 있습니다. 눈에 의지한 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다면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을 바꾸지 못한 채 자동기계처럼 살게 됩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할 때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이런 일이든 이루지 못한 일이든 관계없이 모두를 뒤에다 떨어버리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향해서만 손을 뻗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바라던 것은 하느님의 가

장 높은 곳까지 부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상을 갖기를 바라지만,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하다는가 하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바울이 썼던 것과 같은 방법을 쓰도록 하십시오.

과거를 여러분 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부패를 막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소금에 넣고 보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고, 남겨두고 벗어나기 원하는 상태 안에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상태를 소금물에 넣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과거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그것에 돌아서서, 원하는 모습 또는 하기 원하는 것들에 손을 뻗고 그것에 믿음을 유지한다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상

태에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해나간다면, 사실로 받아들인 존재가 될 것입니
다.

저 역시 블레이크처럼 성경이란 것이 즐겁고,
흥미롭고, 교훈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
만 성경이 읽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성경이
쉬웠다면 저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교훈을 주기에 알맞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히
브리서에 있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은 예언자를 통해 오래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선조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러나 마지막 날,

하느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그의 본성의 소인을 가져오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할 것이니라.”

하느님은 그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 드러냈는데, 그들은 하느님이 말씀하신 비전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였고,
창공은 그가 하신 일을 보여주셨으니.”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느님이 그의 아들 다윗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환상적인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느님은 그 자신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이 되는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다윗만이 그 진리를 여러분이 믿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크 주교(Bishop Pike)처럼 많은 사람이 성경의 저자에 관해 질문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경험한 후에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합니다. 묻겠습니다. 진리

는 경험될 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들었고, 저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제가 진리라고 아는 것만큼 그 진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의 형이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해, 바베이도스에 믿어지지 않는 사업을 일구어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제 형에게 말하기를, 형의 이름으로 된 돈이라고는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은 마음 안에서만 보이는 것들에 의지해 믿음으로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의 그리스도인 내면의 ‘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관찰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그 경험들을 현재의 삶으로 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 놓여 있는 것을 잊은 채 과거에 등을 돌리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는다면, 여러분은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응시하고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거짓이라고 입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 힘, 그 자체이고 반드시 그 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이 만들어놓은 방향으로 여러분은 걸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후에 그 느낌, 즉 그 영적인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잔 하

나를 느껴보십시오. 다시 야구공을 느껴보십시오. 야구공이 유리잔처럼 느껴지나요? 테니스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테니스공이 야구공이나 유리잔처럼 느껴지나요? 옷, 제비꽃, 피아노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모두 같은 것처럼 느껴지나요? 물론 아니겠죠. 바로 그것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체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생생한 방법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지금과 비슷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에 참석했던 한 여성분이 제가 드린 이론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큰 장미 다발을 얹고 있는 상상을 하였습니다. 장미 냄새를 맡고, 부드러운 꽃잎을 만져보고, 그 아름다운 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깨지자 모임을 떠나서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2천 명의 환영인파와 함께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환

영식이 끝난 후, 호텔 집사는 꽃을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장미 세다발을 그 숙녀 분의 방에 갖다놓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향긋한 장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장미를 안고 있다는 생각 속에 빠졌고,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건지 않고 믿음에 의지해서 걸어가자, 그 다음날 그녀의 방은 천상에서나 맡을 수 있는 장미 향기에 꽂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억이란 것에 사로잡혀 예전의 모습들을 향해 계속 뒤돌아보면서, 원하는 모습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통제한다면 믿음의 현실을 창조하는 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현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의상 디자이너는 돈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봉투를 들고 있다 상상했고, 봉투를 열 때 들리는 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었습니다. 봉투를 흔들어 내

용물을 꺼냈고, 돈을 동전까지 정확하게 세었습니다. 7일 밤 동안 이것을 계속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한 여자가 그녀를 불러 일자리와 함께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 돈은 그녀가 상상 속에서 보았던 돈과 동전 한 닢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돈을 세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고,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그 디자이너는 마음속에서 보았던 돈에 만족했습니다.

물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경험했던 진리는 성경과 필적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음 안에 그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녀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믿게 만들었습니다. 듣는 감각을 이용해서 그 봉투가 뜯어지는 소리를 듣고, 봉투를 흔들어서 내용물이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만졌고 그 안에 있는 돈을 보았습니다. 돈은 그것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그녀가 돈이 있다면 어떻

을 것인지 결정한 후에 상상을 했습니다.

어떤 숙녀 분은 뉴욕에 있는 스텐스 백화점에 가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네빌은 상상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 그녀는 돈이 없었지만, 모자가게 가서 자신의 모자를 벗고 새것을 하나 써봤습니다. 그 주위를 돌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의 모자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백화점의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제야 그 직원은 그녀의 모자가 실수로 팔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담당매니저가 와서 죄송하다며, 그녀에게 스텐스 백화점의 선물이니 원하는 모자 아무거나 하나를 집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까 썼던 모자를 골랐고 새 모자와 함께 백화점을 떠났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성은 밤의 일을 하는 분입니

다. 그녀는 제가 하는 강연을 모두 참석했습니다.
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네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력을 이용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날 브로드웨
이에 있는 백화점 쇼윈도에서 예쁜 모자 하나를
봤어요. 그게 18달러였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었
어요. 그래서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마
음속에 그렸죠. 길을 걸으면서 매장 윈도우에 비
친 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자를 쓰고 있다고 상
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옷장에 제 낡은 모자
가 걸려있는 것 대신 새 모자가 걸려있다고 상
상했죠. 전 거의 열흘이나 낡은 모자를 쓰고는
새 모자를 쓰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걸어 자기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친구가 모자 상자 하나
를 꺼내더니 말했어요. ‘내가 미쳤나 봐. 이 모자
를 샀다니. 속상하지만 나한테는 안 어울려. 그
런데 이상하게 네가 이 모자를 쓰면 잘 어울리
겠다는 생각이 들지 뭐야.’ 그러면서 상자를 열

어 모자를 꺼냈는데 다른 모자도 아닌, 바로 제가 원했던 그 모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빌, 근데 왜 하느님은 돈으로 주시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모자를 주셨을까요?”

그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전 말했습니다.

“앤, 그런데 방값을 못 내고 있죠?”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2주 정도.”

“일 주일에 17.5달러 정도인가요?”

“네”

“그럼 35달러를 못 낸 거네요. 그럼 평소 쓰는 모자는 하나에 얼마 정도 하죠? 3달러나 4달러 정도 하나요? 하나에 18달러짜리 모자를 샀던 적 있나요?”

“한번도 없어요.”

“그럼 말해보세요. 만약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면 그 모자를 샀겠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느님이 얼마만큼의 돈을 당신에게 주었더라도 당신은 그 모자를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모자를 대신 사서 당신에게 주었어야 했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옷을 산 적이 있는데, 집에 돌아와보니 제가 무엇에 씌어서 그것을 샀는지 제 자신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포도를 밟아 즙을 내던<역주: 상상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 한 친구 때문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옷 한 벌을 상상했고, 전 무언가에 이끌리듯 양복점에 가서 그 옷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옷을 집에 들고 오니, 아내는 그 옷을 집안에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옷을 원했던 한 친구와 만나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 옷을 구입하는 동안 계속해서 포도를 밟아 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다. 생생한 영상이고, 생생한 소리입니다. 베토벤이 귀가 멀었을 때 외부세상의 소리와는 결별했지만, 내부의 귀를 가지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즐겨듣는 아름다운 음악들을 작곡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또 다른 영적인 감각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만지고, 듣고, 보고, 냄새 맡는 것 등을 해보십시오. 수년 전에 저는 뉴욕의 할렘가를 걷고 있을 때 어떤 음식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는 곧장 저를 바베이도스로 데려다 댔습니다. 몸은 할렘가에 있었지만, 그 냄새가 깨운 후각은 이곳으로부터 2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소리와 감촉 그리고 장면을 기억에서 불러낼 수 있고, 그것들은 우리를 그것들이 있었던 곳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걷지 말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십시오. 뒤에 놓여 있는



것을 잊고 앞에 놓인 것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이 바울의 소망과 같은 것에 한번 도전해보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잠시 꽃피웠던 저 작은 장미는 영원히 꽃피운 채 존재합니다.

어떤 것도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 작은 지구에 존재하는 것을 그만둘 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아름다운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여정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느님이 그에게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때가 되어야만 그의 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여정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복을 벗을 때가 마지막 시간을 위

한 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더라.

그곳은 훨씬 더 좋기 때문이기에.

그러나 내가 이 육체 안에서 너를 위해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하더라.”

바울은 이곳을 떠나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육체를 가지고 남아서 그의 가르침을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제가 한 말을 가슴속에 새기어 모든 바람을 성취하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걷지 말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걷는 것을 배워, 여러분이 성취했던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여러분이 세워놓은 목적을 향해 쭉 뻗어나가십시오. 그 목적지에 다다랐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이 사실

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상태 속에서 걸어나가면 반드시 성취해낼 것입니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BRAZEN IMPUDENCE

철면피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가 2천년 동안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개념을 반복해서 그것과 함께 살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것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외부에 계시는 하느님을 믿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는 단지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불멸의 몸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새로운 개념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깥에 존재하는 하느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나는(I AM)’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침실로 가서 베개에 머리를 눕히고 있을 때, 여러분은 존재를 인식합니다. 바로 그 인식이 하느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 인식을 어떻게 철면피와 같이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한 제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주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소서”라고 간청하자 주기도문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기도문은 라틴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라틴어 주기도문 안에는 본래의 뜻을 전달하기에



필요한 당위(當爲)적인 수동형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본래의 그리스어에 나온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철면피처럼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표현된 당위적이면서 수동적인 태도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어떤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명령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대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는 표현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대의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대의 왕국이 온다”는 표현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대의 왕국이 이미 복원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는 다릅니다. 예수는 우화의 형태로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나와서



친구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세 덩이를 빌려주오. 내 친구 하나가 여행 중에 도착하였는데 그에게 내줄 것이 아무 것도 없소.’ 그러자 안에서 친구가 말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아 줘. 문은 잠겨 있고 나의 아이들은 침대에 있어. 나는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어.’ 하지만 그대에게 말하기를, 그는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지는 못할지라도 친구의 끈질긴 요구 때문에 일어나 친구의 요구가 무엇이든 그것을 내어줄 것이더라.”

끈질긴 요구는 철면피와 같은 태도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철면피는 ‘No’라는 대답을 얻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외적인 형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No’라는 대답을 얻지 않게끔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어나갈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위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

였고, 그것이 현실의 느낌을 가질 때까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고집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줍니다.

“어떤 마을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이 한 명 있었다. 그 마을에는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계속 찾아와서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처음에 재판관은 거부했지만, 계속 찾아와 괴롭히자 생각했다. ‘내가 비록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계속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괴롭히니 더 지치기 전에 그녀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이 이야기는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

이 여러분의 기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동안, 그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의 행동은 비난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인 짓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은 여러분입니다.

순전히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의 행동에 대해 죄를 물었고, 또 그녀는 짓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모두 제가 원인입니다. 제 이야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여성분께서 굉장히 불쾌해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술이나 고기 또는 담배, 섹스 따위를 최근에 끊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가 이전에 했던 행동을 한다면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예전의 습관들과

너무 가까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여성분이 제가 말하려는 이야기와 유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단지 하나의 원리에 대해 말하고자 할 뿐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법칙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전 열여덟 살에 결혼해서 열아홉 살에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해에 우린 따로 갈라서게 됐지만 서류를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이런 상황은 불법이 됩니다. 16년이 지난 후, 지금의 아내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고 했을 때, 전 잠에 들 때 마치 우리가 결혼한 것처럼 상상했습니다. 제 몸은 호텔방에서 잠에 들었지만 상상 속에서는 그녀와 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댄싱 파트너는 제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아내에게 제가 이혼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녀를 다른 곳에서 지내게 해서 찾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사랑

하는 이와 행복하게 결혼해 있다고, 계속 끈덕지게 사실로 받아들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냥 친구가 장난친 거라 생각하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9시 30분이 되도록 면도도 하지 않고, 옷도 편하게 입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오늘 아침에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지금 법정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는 개정하는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제 아내는 뉴욕에 있는 백화점에서 계산하지도 않은 물건을 몰래 집으려 하자, 현장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전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이자 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는 16년 동안 떨어져 지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아내는 단 한번도 이런 일을 저지른 적

이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훌륭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내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저보다 8살이 많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겪은 어떤 감정적인 상태가 분명히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었을 겁니다. 그녀에게 처벌을 내리시려 한다면,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재판관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있으면서 이런 호소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당신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현재 이혼을 원한다고 하던데 이런 이혼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얻었는데도 그녀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군요.”

그리고 재판관은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정 뒤에서 저를 기다리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빌, 정말 고마워요. 이혼서류를 주면 서명할게요.”

저는 서류를 아내에게 건넸고 아내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다른 곳에 살던 아내가 뉴욕에 와서 경찰에 붙잡히고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모두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한 행동을 알지 못하나다.”

그들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충동 속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마치 제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느님은 전능하고 모든 곳에 편재하기에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경이로운 자아로서,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외부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종이자

하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장면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머무십시오. 여러분 상상 속의 카운슬러(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느낌)가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장면을 수락한다면 상상은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장면을 만들고 다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에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장면은 아파트의 침실이었고, 아내와 제가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호텔에서 혼자 자고 있지 않다고, 상상 속에서는 말했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잠에 들었고 일주일 안에 이혼을 하기 위한 서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때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얻었다고 믿을지니.
그러면 그때는 얻게 될 것이니라.”

믿음에는 어떤 한계가 없고, 기도에도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끈질기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NO’라는 대답을 얻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접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상상력일 뿐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제가 이 연단에 서 있는 동안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이 건물 바깥에 서서 이곳을 보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런던에 서서는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찌면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단순히 환영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단지 마음속의 영상일 뿐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의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17살 먹은 제 조카가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누이를 위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사랑했던 아이는 살과 피로 덮인 조카의 육체가 아니라 조카의 영혼이라는 사실

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제 침실에서 방문을 닫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이는 바베이도스에 있는 고향집에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카가 있는 방 침실에 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누이가 조카의 방에 들어왔을 때 조카를 보지 못하고 저를 보게 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누이가 방에 들어올 때까지 전이 상상 속에 폭 빠졌습니다. 누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 저를 쳐다봤고 깜짝 놀라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누이를 봤고, 누이는 조카가 아닌 저를 봤다는 것에 만족감이 생기자, 그 경험에서 빠져나와 다시 아내와 제 친구가 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열흘 후에 제 누이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네빌,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상상을 했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아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너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넌 분명 뉴욕에 있을 텐데,

빌리는 보이지 않고 너만 그곳에 있더라. 난 정말 놀라 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다시 빌리의 방에 들어갔더니 그때서야 아들이 보이더라.”

제가 떠났을 때, 그때야 누이는 빌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존재가 상상력이라면 저는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어떤 장소에 현실과 같은 감각적인 생생함을 줄 수 있다면 2천 마일이나 떨어진 제 누이도 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빌리의 생명을 구하지는 않았습
니다. 조카는 죽었지만, 전 제 누이에게 조카는
살과 피로 덮인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
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생이 바베이도스에 있
는 누이에게 나타난 것으로 누이는, 육체 안에는
어떤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영원한 죽음
이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의 세
상으로 가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
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제 조카가 죽었다고 말
할 때에도, 그 안에는 영원한 삶을 지속하는 존
재가 있다는 확신을 그날 밤 제 누이에게 심어

줄 수 있었습니다. 조카는 어디로 갔나요? 이곳과 같은 세상 속으로 다시 어린 아이로 나아가서는 태초부터 그를 위해 만들어놓았던 끝없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 여정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빌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낼 때, 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느님의 존재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이동의 기술을 연습하십시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전 거실에 앉아있었고 전화기는 복도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제가 전화기 앞에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기 있는 곳에서 거실을 보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어디든 순식간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전 이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해보십시오. 아마도 제 누이가 저의 모습을 봤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상상 속의 여행을 즐겨 해보십시오. 전 항상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입니다. 살과 피를 가진 조그만 육체 속으로 자신을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살과 피로는 하느님의 왕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가죽옷을 언젠가는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던져버린 존재가 바로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가 바로 모든 생명의 아버지인, 하느님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인생은 참으로 신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충만하게 되고 결코 외롭지 않게 됩니다. 전 거의,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고 명상을 하며 지냅니다. 눈을 감고 상상력을 이용해 세상을 여행합니다. 그 여행에서 아주 재미있고 많은 교훈거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저를 확장시키고 진정한 자아인 불멸의 존재를 더욱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본 성경 속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알지도 못하는 하느

님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침실로 가서는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에 차서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원하는 것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생각 안에서 잠에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의 모습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곳을 이어주는 다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상상력을 사용해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행운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예전 아내는 그런 일이 왜 생긴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저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녀는 불행해질 거란 걸 알았는데도 그녀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힘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이의 행동을 용서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에게 요청하지 않고
저곳의 하느님에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거주하고 있는데 왜 다른 하느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이 여러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하느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을 살과 피에 한정시킨다면, 바로 그것은 하느님을 그렇게 한계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과 피를 입고 있는 자가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하느님 사이에 어떤 중재자도 필요 없습니다. 저곳으로 가면 더 좋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

한 후에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이 바뀐다면 어떤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장면을 구상하십시오. 내적인 마음의 구조가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된 것과 비슷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이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법칙을 직접 증명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우리 모두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계속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주이고, 하나의 영이고, 하나의 신이고, 모든 것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선언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세상에 있는 어떤 작은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그를 볼 수 있다면 그도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친구가

자신이 겪은 아름다운 환상을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흰색 의복을 걸친 한 남자가 언덕 위에 서서 사원입구로 들어가는 단집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단집에 사용되는 줄을 보았는데, 반투명의 녹색이었죠. 그런데 그 줄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남자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네빌 당신이란 것을 알아차렸죠. 그런데 당신은 또 미켈란젤로였어요. 당신은 제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시간 동안 저는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줄을 가지고 바구니 형태로 짰더니, 당신이 제게 감사하다며, ‘아주 잘 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전 잠에서 깬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꿈입니다. 저는 영원한 시간 동안 부활의 이야기를 말해오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살아있는 형태로 전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나 대리석으로 만든 다윗상처럼 여전히 죽어있는 채

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다윗이 살아있게 만드십시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잠에든 피에타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지만, 지금은 죽어있는 성문법전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기 원하면서 잠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극화하십시오. 그것을 연극이나 드라마로 만들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생명을 얻게 하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경험해서 죽어있는 다윗이 생명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지녔던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으로 그 죽은 자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젓가락 하나 만들지 못하는 저는 죽은 형체가 제 안에서 생명을 취하는 것을 경험해서, 그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가 2천년 동안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he Pruning Shears of Revision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



이 가르침으로 죄지은 자들은 자유를 찾을 것이고
절대 다른 이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비난할 것도 없고
오직 용서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의
주제는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지혜롭게 매일
이용한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난 소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확신합니
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소망이



란 없습니다.

제가 일곱 살 때 한 노파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에 대한 비전을 하나 보았는데 말해보마.
환상 속에서 이렇게 봤다. 네가 앞으로 어떤 일
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어떤 일을 하
게 될 거고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그 일을 무효
로 만들지 못할 게다. 그리고 네가 죽은 후에도
네 명성은 계속 커져만 갈 거야. 그런 후에 사람
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회자될 때 다가 올 수백
년 동안 그 일로 인해서 세 명의 사람이 언급될
건데, 네가 그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아침의 주제가 바로 어렸을 때 들었
던, 그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제가 한 말
을 들어서 그것을 믿고 정말로 사용해본다면 여
기 모인 우리들로부터 그 씨앗은 뿌려질 것이고,
후에도 이 씨앗을 무효로 만들지 못 할 것입니
다. 바로 그것은 마법이고, 교정용 가지치기 가
위라 불립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뿐

만 아니라 매일같이 이용한다면, 여러분 내부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겨줄 것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죄지은 자들은 자유를 찾을 것이고 절대 다른 이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비난할 것도 없고 오직 용서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용서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우리가 용서해야 할 상대방을 그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모습 안에서 내가 지니게 될 비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만 하고, 나의 삶은 그런 회



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나의 이상으로 다른 이들의 모습도 그렇게 만들어, 그 일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에덴의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곳에 놓으셨더라.”

여러분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정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추방되었고, 그곳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의 정원에 있고,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원사들처럼 가지치기 가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온 것처럼 잠들었기 때문에 정원에 잡초가 보이기 시작



했고, 그 잡초는 삶의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은 항상 스스로를 세상이란 곳에 투영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느님의 정원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사명과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긁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명성을 얻는 것도, 어떤 큰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의 사명은 하느님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정원에 오직 사랑스러운 것들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안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안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 뿌리내려 있고 하느님 안에서 끝이 나는 것처럼, 그

들은 내 안에 뿌리내려 있고 끝이 납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단지 그 뿌리가 주는 것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세상 안에서 자라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기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쪽의 별판을 보고 있나요?

당신이 참깨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저 참깨는 참깨 씨였습니다.

저 옥수수 옥수수는 옥수수 낱알이었습니다.

침묵과 어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외부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의 근원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부로 시선을 돌려,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베어내십시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 하루를 다시 돌아봅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루 전체를 살펴봅니다. 하루의 모든 장면, 모든 사건, 모든 대화, 모든 만남. 그런 후에 마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선명하게 보고, 그 일들을 다시 씁니다.

그것을 다시 써서, 내가 경험했으면 하는 이상적인 하루로 만들어갑니다. 장면 하나 하나를 가지고 다시 써내려가고 교정합니다. 교정해 나갈 때, 나의 상상력 안에서 그 경험들을 교정된 하루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단지 상상 속의 일처럼 보이는 상태를 현실과 같은 분위기를 취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은 정말 실체처럼 보이고, 나는 정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렇게 교정된 하루는 만약 제대로만 경험되었다면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을 내일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들은 나를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 존재의 속성을 변화시켜서 그를 변화시켰기에 그는 내 안에 자리잡은 변화의 증거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로
이 마음이란 정원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망들을 이루고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방법이 진정 영광스러운 이유는 이 교정의 기술을 사용하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게 되어서, 어떤 일에 대해 자신에게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와 용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지 않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박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그런 판단으로 여러분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실현시키기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이 되어있는 것을 상
상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어야 합니다.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그대는 용서받을 것이더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더라.”

이것은 자동적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으로부터 솟아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
러분 안에서 바로 용서의 정신을 일깨우고 여러
분이 바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그 2천 년
전에 살았던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실한 앎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에 어떤 논쟁도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말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죄를 없애기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나타나셨더라.” 여러분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만들어 죄를 씻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한다는 것은 자신을 불구덩이에 던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희생 제물로 만든 자아는 자신이 믿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의 총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떤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몇 명의 남자들에게 멋진 아내를 얻게 해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품위있는 사람과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을 못한 상태였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아의 한 부분이고, 그것은 또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

습니다. 저는 저의 자아를 희생 제물로 바쳐야만 합니다. 제 존재에 자리하는 그 여성분의 부분을, 저나 제 세상의 다른 것들처럼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제가 반드시 희생 시켜야 할, 그리고 죄를 씻어야 할 자아입니다.

신비가에게 있어서 죄란 과녁을 빗나가는 것을 뜻하지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규칙을 어기는 것을 과녁으로 삼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신비가에게 죄란 인생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녁을 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죄를 씻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아란 유일하게 자신이 동의한 모든 것, 자신이 받아들인 모든 것, 자신이 사실이라 믿은 모든 것을 뜻한단 걸 안다면, 실업 상태인데 일 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해서 나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는 그가 실업상태라고 믿 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과녁을 맞추지

못한다는 죄를 씻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죄를 씻게 되었을 때 희생 제물로 나 자신을 바칩니다. 오직 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죄를 씻습니다. 나 자신은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교정에 들어갑니다.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실업상태라고 당연하게 말할 수 없고, 그가 일자리를 찾았다고 믿습니다.

나는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이용해서 그 일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마음의 눈앞으로 데려와서는 그가 이제 보수가 있는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행운에 축하를 보냅니다. 더 이상 나의 눈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나의 축하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앞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상태에서 그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잘라내고, 다시 한번 그곳에 하느님의 정원에서 자라는 새 가지를 만들어놓습니다. 내일이

면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일자리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가치를 베어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현시키기 원하는 이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가꾸는 행동을 매일같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정원을 가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습관대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정원은 잡초들로 무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정원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겐 정말 이 멋진 나무를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는 여러분이라는 포도나무에 뿌리내려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를 정원사, 즉 하느님의 정원에 있는 정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정원에 있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생명을 실어 나르는 나무, 모든 사람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가져오는 하나의 나무입니다. 여러



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오늘 진지하게 시험해보려 한다면, 오늘밤 낮의 고민들을 가지고 해가 저물게 놔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부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보고는, 새롭게 가지를 칠 것들을 보십시오. 오늘 친구와 나눈 대화를 하나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이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논쟁을 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본을 새로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새로 쓴 각본대로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상상 속에서 불러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세상 모든 것은, 그것이 바깥세상의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의 상상력인 여러분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상력은 창조된 모든 것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은 바로 그곳, 상상력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작업실이자 하느님의 정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정원에서 정말 최고 정원이 되는 것에 뽑혔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말 고귀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원사인 여러분에게는 가지치기 가위가 필요합니다. 그 가지치기 가위는 경험을 새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교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날을 교정했을 때 여러분은 그 날을 무효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겪은 일은 과거로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로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교정용 가위로 잘 가꾸어진 날이든 아니면 어떤 생소한 잡초로 무성한 상태이든,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미래로 나아갑니다.

미래에서 어떤 상태로 만나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신

사 숙녀 분들 모두가 제가 드린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인 여러분의 정원을 가꾸는 것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2주 후에 이곳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서 피어난, 즉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상상력인 가지치기 된 나무에서 새로 피어난 것들을 제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도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블레이크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기술은
잇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유일한 기술은 마음의 자리에 아무 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자리에 놓음으로써 완벽하게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상한 기사들이 실렸을 때도 여러분은 그것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 기사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도자, 양떼들의 목자라고 자처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이단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버려야 할 것은 없고 오직 그것을 다듬고 자신이 이상으로 삼은 것에 맞춰만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하나도 아닌 모든 종교를 파문시켰습니다. 자신의 삶을 교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진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 삶을 바꾸는 예수의 영이 진정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서 삶을 바라보는 비전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타임지의 최근 기사에는 스피노자라는 위대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세상의 철학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가 이 땅에 있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풍성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전 총리인 벳구리온은 랍비 지도자에게 300년 전에 세워진 파문의 법을 폐지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랍비들은 벳구리온에게 자신들은 선조들이 만든 것을 폐지할 수 없고 그 저주는 영원히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리석은, 아주 어리석은 저주를 타
임지에 실린 그대로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랍비들은 마치 천사가 저주를 행할 수 있는 것
처럼, 스피노자를 저주하기 위해서 모든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스피노자를 파멸시키기 위
해서 모든 것을 불렀습니다. 그 누구도 그와 말
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그에게 어떤 친절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그에 관해서 글
을 써서는 안 되고, 그가 쓴 것을 누구도 읽어
선 안 되는 등의 저주를 했습니다. 이런 것 모두
300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스피노자를 저주한 랍비들은 오랫동안 잊혔습
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오직 그들
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
리는 그 저주를 했던 랍비들이 누구인지조차 모
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스피노자의 작품
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스피노자의 말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청중들도 모두 스피노
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보았을 것입니다. “자연
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말을 스피노자 했던 것

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 말을 사용하고 있고, 저 역시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것은 스피노자였습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도 철학의 거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자신을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 혹은 목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작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가서 예레미아서를 한번 잘 읽어야 합니다.

“목자인 그대는 나의 포도나무를 망쳤고,
나의 정원에 들어온 그대는
나의 포도나무를 뽑았고,
이제 그것은 어떤 포도도 없고,
어떤 잎도 없고,
예루살렘의 정원은 이제 잡초만 무성하더라.”

예레미아서의 이 부분을 읽고, 목자, 아니 스스로를 목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눈먼 자들의 눈먼 지도자인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통곡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드린 말을 잘 따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제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위해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으로 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주었고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제가 드린 말을 직접 시험해서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상상력을 잘 가꾸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의 눈앞으로 데려와서 부드러운 영혼,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생각하고 가장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실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을 멈추고 친구로 만드십시오. 그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설사 그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더라도, 여러분은 그의 모습을 가지치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치를 다듬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한 그 사람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정원에서 정원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잡초가 자라게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한 여선생님은 자신의 제자가 퇴학을 맞을 시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의 강의를 듣고는 자신의 하루를 교정해서 아이가 퇴학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무례하고 버릇없고 파렴치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며 정신의학자들이며 모든 교수회에서 만장일치로 16살 생일에 내쫓자고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요일 밤에 집으로 가서는 마음의 눈앞에 그 아이를 불러내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그곳에서 상냥하면서 사

려 깊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전날 밤에 교정한 것과 같은 훌륭한 모습을 아이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모든 교수진과 정신의학자자의 눈에도 아이의 그런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다시 주관되었고 열흘 전의 판결이 취소되어 아이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뉴욕시에 있는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에 여전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곳에서 어떤 나쁜 평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만든 것은 한명의 교사가 여러분이 들었던 것과 같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분들 모두가 믿기 바라는 것을 그녀는 믿었고, 자신의 나뭇가지들을 원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그 아이가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모두가 자신과는 분리된 바깥세상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비

친 세상은 외부적인 것,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눈먼 자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자신과 내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그가 교정용 가위를 이용해서 회복할 것이고,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일곱 살 때 그 노파가 말했던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거짓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 이 3차원적인 세상에서 정말 어느 때라도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이 교정의 기술을 거짓이라고 증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일어설 수 있으며, 그렇게 솟아올라 용서의 정신을 일깨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머지않아 성

공적인 사업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자신의 수입을 늘리는 등의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이런 것들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자신에게 유희를 제공해주는 장난감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일깨울 때까지 즐거움을 주는 장난감입니다.

그때 부에 대한 유희를 넘어서, 사회의 회복, 즉 세상 모든 사람의 회복이라는 완전히 다른 사명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니,
그분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은,
나는 그 어떤 것도 잃은 것이 없으니,
나는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더라.”

어떤 것도 잃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어떤 것도 파문시키지 않고, 어떤 것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이 그것을 일으켜 세운다면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 여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자신의 경이로운 상상력 안에서 무한하게 뻗은 정상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올라가게 할 때 오직 그때에만 여러분도 그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눈먼 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외의 다른 사람들은 던져버립니다. 수백 년 전에도 눈먼 자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자신들을 지도자로 생각했던 최고 평의회의 말속에 이 이야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자아를 구원하는 길 외에 자신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 모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안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내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정원에서 진정한 정원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아이에 대해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많은 소망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법칙이 어떤 이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함께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흔들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시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낯설고 잘못된 모든 상태에 형체를 부여하면서 꿈을 꿔왔습니다. 세상은 오직 여러분이 상상력을 잘 사용했



는지, 잘못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은 그 안에서 살고 있고, 그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없다면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상상력을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세상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상상력을 사용함으로써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실제로 중재합니다.

역자 후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 최면사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에게 동전을 비스킷이라고 최면을 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최면상태에서 동전이 비스킷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힘도 안 들이고 동전을 구부렸습니다. 역도 선수조차 구부리지 못한 동전을 그렇게 쉽게 해내는 것을 보니 우리 인식의 힘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했습니다.

최면에 걸렸을 때의 아이와 평소의 아이가 다른 점은 동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전을 구부리게 한 그 괴력은 외부에서 주어진 힘도 아니라,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었을까요?
단지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낸 것은 또, 인식의
변화가 아니었을까요?

진리는 우리자신 안에 있으니,
그것은 그대가 믿고 있는,
외부에 나타난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더라.
모든 이에게는 가장 깊은 곳의 중심부가 있고,
그곳에는 진리가 온전한 형태로 머물러 있으니,
깨우친다는 것은 그곳에 갇혀있는
광채가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외부에 있다 여겨지는 빛이 들어가게끔
그 입구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닝 : “파라켈수스”

네빌 고다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이런 무
한한 인식의 변화를 상상의 힘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변
화는 자신의 육체에 관련된 힘만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 주변세상 모두에 힘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와 우리자신의 단점을 강하게 인식하며 삽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의 말처럼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세상에 힘을 부여하는 유일한 실체라면, 우리는 그 인식을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상상은 어찌면 아직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현재로 만들어놓는다면 위에 말했던 어린 아이처럼 우리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빌 고다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이 법칙을 단순히 믿는다거나 단지 마음의 위안거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법칙을 믿지 못하더라도 법칙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사용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진심임을 밝힐 수 있고, 그때에만 우리는 이 법칙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앞

의 차원을 벗어나 삶의 든든한 기반으로 말
이
조.

분명 이 법칙은 삶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큰 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물질적인 추구와 어떤 풍족한 생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껏 조종해왔던 내면의 큰 힘의 존재에 대해 깊게 추구하게 될 지 모릅니다. 그때 진정한 자아를 가리던 어떤 것도 없이, 어떤 중재자도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의 본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은 네빌 고다드가 1939년 첫 책으로 냈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원제 At your command)’를 비롯해서 1953년에 강의했던 ‘의식의 힘’, ‘나의 느낌을 바꾸기’, ‘최상의 지배권’, ‘확실한 투자’ 이렇게 네 가지 강연과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강의를 ‘믿음으로 걸 어라’, ‘철면피’ 그리고 시크릿이란 책에도 소개되었던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한권의 책으로

뭉은 것입니다.

분명 네빌 고다드의 강의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잠깐의 감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경이로운 시선을 갖고자 한다면 네빌 고다드가 제시한 방법을 우리의 경험으로 꼭 나타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순수해져서 어떤 부정한 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순수하게 다가오고, 어떤 것도 비난하지 않는 완벽한 시선을 갖으려 한다고 네빌은 말합니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우리가 갖추게 될 궁극적인 시선이라 말합니다.

책을 내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가족과 아내 그리고 비욘드더시크릿카페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를 볼 수 있는 곳

<http://blog.naver.com/pathtolight>

<http://www.beyondthesecret.kr>

<http://www.realneville.com>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 판 1쇄 2008년 9월 12일

개정판 1쇄 2009년 5월 25일

ISBN 978-89-960939-4-7 03110

지은이 네빌 고다드

옮긴이 이상민 Tel. 016-9424-0035

다듬은이 김의숙

펴낸곳 서른세개의 계단

Tel. 070-7538-0929 Fax. 051-980-0929

잘못된 책은 교환 해 드립니다